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현안질의
- 현안질의 관련 중인 철회의 건(추가)
- 간사 선임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2. 현안질의 관련 중인 철회의 건	5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3. 간사 선임의 건	15
o 간사(배준영) 인사	15
1. 현안질의	17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운영위원회에 함께 하는 첫 회의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국정 현안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되시거나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22대 임기가 시작하면서 원만하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여야가 함께 정상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역대로 원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맡아 온 오랜 관례가 이번 회기 들어서 깨져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이런 관행이 다시 지켜져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국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원회인 만큼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협조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보기 좋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야가 상생을 해야 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야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명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을 국회의원 강명구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 회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의정활동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원회에 있었던 여러 크고 작은 불쌍사나운 모습들 아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말 건전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첫 시작에 초선 의원이 배울 수 있는, 시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먼저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입니다.

12년 만에 다시 국회에 오게 됐습니다. 박수현 위원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때도 여야가 입장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몸싸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또 같이 서로 입장을 존중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한 달간 지켜보면서 참 걱정입니다.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국

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여야는 때로는 입장을 달리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울 것은. 그러나 그 싸움이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또 국민들이 바라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은, 그건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회가 국회가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는 데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 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인데요. 그래도 저는 중인의 중인 선서라든지 여러 무리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전에 협의가 잘돼서 첫 출발을 이렇게 여야가 마주보고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늘 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 운영위를 맡았었는데 현정사에 없었던 야당이 맡게 돼서 유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라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이곳 운영위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호 관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지성인이고, 품격을 갖춰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땅에 떨어진, 위상이 추락된 정치인의 전체적인 위상을 올리는 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상주·문경, 문경·상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치와 권력분립이 살아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작동해 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지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께서 보여 준 그런 행태들은 힘의 논리로 인해서 무작정 밀어붙이면서 권력분립 정신을 아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심히 유감스럽고.

박찬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장님도 3선이고 저도 3선, 초선 때 뺐을 때는 참 좋아 보이고 그러던데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독해졌는지…… 지금 우리가 자기 신념과 원칙만 강조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 불행입니다. 정치는 곧 타협의 산물이어야 되고 타협을

할 때만이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무턱대고 협치, 타협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팬덤들한테 또 배신자라고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치를 꼭 이루어 내고 서로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이 국민이 편안한 것입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이것은 독재에 가깝기 때문에 부디 박찬대 위원장님, 초심 잊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권력분립 및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따끔한 충고 잘 받들겠습니다. 협치의 아름다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진구갑 정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교총 회장 하다가 국민의힘에 영입됐습니다.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통치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에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삼권분립이 확고히 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다. 자랑스럽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초등학생들 위에서 앉아 있는 것 보고 다 같이 박수 쳤던 기억나시지요? 그때는 여야 없이 다 아이들에게 박수 쳤잖아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삼권분립의 나라지만 대통령은 또 하나의 지위가 더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입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탄핵이라는 말을 남발한다든지 또는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헌법을 가르칠 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얼굴이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 주시고 선은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진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구갑의 주진우 위원이라고 합니다.

여야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가 보다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 달라는 요구,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품위와 품격 있는 정치를 이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협치를 바라는 그리고 품격 있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협치 그다음에 국회 존중 잘되는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77조에 따라 현안질의 관련 증인 철회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철회의 건 심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시 정당하고 당연한 국회의 회의 참석 요청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대통령비서실 등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현안질의 관련 증인 철회의 건

○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던 18명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실, 이의 없으신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 위원장 박찬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안질의에 앞서 오늘 출석한 기관의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이신 정진석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인사말씀 들으시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돌봄과 간병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환급, 대환대출,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체계 강화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

시켰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노사 법치주의와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노동개혁,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대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 경제 성과를 OECD 35개국 중 2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입니다.

장호진 안보실장 소개하겠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입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은 박춘섭 경

제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출석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출석했지요?

다음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존경하는 박찬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와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외교로 풀어 나가면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리더십과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현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여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초의 나토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첫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그리고 최근에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강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대규모 다자회의—한·태국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서울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은 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회의들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또 국민에게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위성던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켜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고도화, 내부통제 등에 주력하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정신과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가 위기 관리를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로 구분하여 초기 상황부터 대응까지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현시대에 발맞추어 공급망 위기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협력 네트워크도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통해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투자와 기업 경영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익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민관군 통합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저희 외교안보 정책에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안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입니다.

인성환 2차장입니다.

왕윤종 3차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안보실의 업무현황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마지막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직 대통령, 주요 국빈 등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테러 등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사제 폭발물 및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경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경호 환경에도 과학경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여 경호대상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6월 초에 개최되었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임무 수행하였고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내년 APEC 정상회의도 빙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과 안정적인 다자간 정상회의 안전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경호임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 나와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위원장 박찬대 잠깐 일어나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나와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앉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강민국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박성준 위원 제가 먼저 좀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박성준 위원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박성준 위원이 잠깐…… 박성준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배준영 수석님에게……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업무보고 하겠다고 서로 얘기가 돼 있던 겁니까, 이게?

○배준영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박성준 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정부기관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현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고 지금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자리에 업무보고 자료가 있어요? 대통령실 현황 자료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비한 자료를…… 미비가 아니지요.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해도 됩니까?

○박성준 위원 아니,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마치셨나요?

○박성준 위원 예.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 간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박성준 위원 간사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간사가 그 정도로 대통령실하고 연관이…… 서로 얘기가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 양당 간사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자, 발언권……

○박성준 위원 간사하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사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서로 양 간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대**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아니, 빤히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박성준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대통령비서실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오늘 사실 저희들이 운영위에 출석할 때는 중인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해서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업무보고로 전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인 출석이 되면 업무보고가 생략이 되는 걸로 알고 중인 자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업무현황보고가 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오늘 회의 도중에라도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님, 전달이 안 됐나요?

○**배준영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경호 대표님, 전달이 안 됐나요?

○**추경호 위원** 아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지요?

오늘은 아마 중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인 출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상임위 질답하는 형식으로 전환돼서 중인 철회를 한다, 그 정도의 합의만 있지 순서가 업무현황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에 관해서는 사실, 이번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간사 간에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스럽지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회의가 그동안 과행에 의해서 단독으로 되다가 간만에 합의에 의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정상적인 중인 출석이 아닌 정부 관계자로부터 질답을 듣는 이 시간으로 온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업무현황보고가 먼저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아직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간사 간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건 유감스럽고 앞으로 할 때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충실히 잘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진행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를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걸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우리 원내수석도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야지요, 간사 간에 서로.

○**위원장 박찬대** 말씀 그만해 주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중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의결하고 그리고 출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운영위 운영위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보고와 관련된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음에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미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당의 간사가 선임도 안 됐는데 간사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박찬대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그리고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더욱이 청문회도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박성준 간사님 말씀 따르자면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 전반에 관한 현안질의, 업무보고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보고 그리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안질의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선서를 강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안질의는 뭐…… 또 그 논리를 내가 보니까 현안질의는 안건 심의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논리를 만들었던 데 그게 국회법 129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은 그래도 박찬대 대표님이 증인을 철회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각종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모든 국회의 행사에는 안건 심의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명분으로 일반적인 국민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국회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증인 채택 강행과 또는 증인 출석 강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하는 삼권분립, 언론 독립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행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오늘부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원장 박찬대** 시간을 1분만 주세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아니, 대표님……

○**위원장 박찬대**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나는 위원장이라는 발언도 안 하겠지만 박찬대 대표님, 지금 위원 발언권을

줘 놓고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뭐니까? 이게 협치예요?

○위원장 박찬대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협치입니까?

○위원장 박찬대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강민국 위원 이게 협치예요?

○고민정 위원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좀 정리하시지요.

○강민국 위원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윤종군 위원 아까 본인이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발언권 안 얻고.

○강민국 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못 배웠군요?

○윤종군 위원 아까 본인이 더 발언권 안 얻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강민국 위원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위원 발언하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에 다 잘라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종군 위원 아까 위원님이 더 많이 얘기하셨다고, 발언권 안 얻고.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아니,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중간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그것?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강민국 위원님!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세요? 그것 어디서 배웠어요?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요, 민주당 아버지는?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발언도 아직 안 끝났는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진욱 위원 어디서 샷대질을 하고 있어요!

○강민국 위원 뭔 샷대질이야. 누가 샷대질한다는 말이야!

○윤종군 위원 지금 계속 샷대질했어요. 화면 돌려 보세요. 위원장한테 계속 샷대질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강민국 위원 그게 샷대질이잖아!

○윤종군 위원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강민국 위원 아니, 기본도 몰라요, 기본도?

○위원장 박찬대 자, 조용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도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알려진 02-800-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격노를 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해라.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격노를……

○**임이자 위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그래요?

○**추미애 위원** 했다고 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따 질의시간에 하세요!

○**추미애 위원** 그래서 이 수사외압 의혹의……

○**정진욱 위원** 위원님 말씀할 때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말이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해야 되는 거지!

○**추미애 위원** 진원지인 대통령 격노에 대해서……

○**정진욱 위원** 임이자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 할 때마다 제가 끼어들까요?

○**추미애 위원**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소란)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라고 그려세요, 질의시간에.

○**임이자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 볼륨 좀 올려 주세요.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가능하게 말 좀 제지시켜 주세요, 국민의힘 위원들!

○**정진욱 위원** 아니, 지금 여러분 주장하는 협치가 깽판치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깽판이라니!

○**정진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추미애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중인 신청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5선씩이나 되는 위원님, 5선씩이나 되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제대로 구분을 못 해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추미애 위원** 추가로 중인 신청이 있는데요.

○**김정재 위원** 민주당은 발언권 얻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세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추미애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공식 휴가 일정인 여름경에, 2023년 8월 2일과 8월 8일 사이에 청해대에 휴가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임성근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해군준장인데요. 또 해병대 중령인 육상경비대대장, 아마 저도 소대 및 가덕도 B중대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전속 부관과 운전병에 대한 중인 신청을 요청합니다.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맞아요, 저게?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만 할 수 있어요.

○**정성국 위원** 지금 저게 의사진행발언이 맞습니까?

○**고민정 위원** 중인 신청이잖아요.

○**강민국 위원** 중인 신청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료 요구예요, 자료 요구? 아니,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정성국 위원** 아니, 강민국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고……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민주당 간사님께서 저를 국민의힘 간사로 지목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간사가 아닙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계속할게요.

그리고 이 회의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의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이런 인내심을 갖고 겨우겨우 찾아온 회의에 박수치고 맞아 줄 정도의 그런 아량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메시지 정도는 주셨어야지요. 문전박대하고 뱀로 차서 내보내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더불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다 인사했잖아요. 그러면 회의 절차를 준수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지금 간사 선임의 절차를 아직 봤지 않은 상태인데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박성준 간사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를 듣고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처음 열리는데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대통실이면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 기본 자료는 다 주잖아요. 여기 지금 받았어요, 여당 위원님들? 오늘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현황,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누구인지 어떤 기본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현안질의가 됐든 중인 채택이 됐든 들어왔을 때 기본 자료는 다 주지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적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의문표를 던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

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자료는 주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의사진행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시고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위원장님이 하시고 거기의 야당 간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자료가, 원래 이 회의 세팅도 두 분께서 중심이 돼서 하신 거고 여기에 자료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하면, 그 자료가 오늘 오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여기의 수석 전문위원 등이 전부 위원장님 통할하에 있는 겁니다—실무자보고 왜 자료가 없느냐고 그렇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지 오늘 처음 회의에 온 여기보고 왜 순서가 이러냐 저러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지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사 선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말씀 잘 들었고요. 의사진행발언은 현안질의 시간에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간사 선임의 건

(10시45분)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다음으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 우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간사 외에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배준영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배준영) 인사

○**위원장 박찬대**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주당과 더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저희는 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실과 방금 연락을 해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간사님!

○**김정재 위원** 간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좀 계세요.

배준영 위원님……

○**권영진 위원** 아니, 배준영 간사님, 뭐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그것은 여당에서 논의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제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권영진 위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배준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잠깐만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신속하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일단 배포해 주시고요.

○**고민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자료제출만 하시지요.

○**권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할게요.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참석자가 누구이고 회의 내용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왔나 하면 ‘요청하신 자료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로 왔습니다. 이 말이 맞으면 기록물 유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까지, 저녁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 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관련한 자료들은 오후 중에라도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비서실장님,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정말 없나요?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의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보안상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허위 서면자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요청하신 자료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못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민정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방금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줄 수 없는 겁니까?

○권영진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 회의 구성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제출한 선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준비된 보고자료가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고요.

1. 현안질의

(10시50분)

○위원장 박찬대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1항 현안질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 간사 뭐 하는 거예요, 간사?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보장해 주셔야지요.

○ **김정재 위원** 간사, 간사 뭐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 안 하는 겁니까?

○ **강민국 위원** 아니, 위원장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요?

○ **위원장 박찬대** 먼저……

○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후에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민정 위원님 자료제출 후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박찬대** 일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협치하신다면서요!

○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입을 막습니까, 왜!

○ **임이자 위원** 협치하신다면서요. 의사진행발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세요!

○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 소란)

○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박찬대** 아니, 지금 계속 지연하는 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위원장님,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찬대** 나오지 마세요.

○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가 계세요, 좀. 간사하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받아야지요.

○ **위원장 박찬대** 간사님, 권영진 위원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주니까 그렇지요.

○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 주는 의도는 뭐예요?

○ **위원장 박찬대** 한 명씩 하실까요?

○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권 위원님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찬대** 권 위원님 간사세요?

○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줘요, 위원장이? 어떻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요?

○ **위원장 박찬대** 빨리 자리에 들어가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자리에 들어가시라고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들어갈 테니까 달라고.

○위원장 박찬대 들어가 계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주실 거예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가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받기로 했어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들어가시라고요!

○위원장 박찬대 아니, 왜 이렇게 막무가내입니까?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신다면서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위원장, 간사와 협의)

○위원장 박찬대 지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한 명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현안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나……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해서 세 분 하시고요.

○서미화 위원 저도 해야 됩니다. 저 서미화도 시켜 주세요.

○박성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이렇게 돼 버리면 본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한 명씩 하고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권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다음으로 신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도 신청했어요.

○위원장 박찬대 첫 번째 질의자는 고민정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여당, 야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의사를 진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안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자료가 없으면 위원들이 위원장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해 놓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불러 앉혀 놓고 업무보고 자료도 없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경위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위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가 임명이 됐으면 저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간사들이 앉아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협상을 합니까, 위원들 앉혀 놓고? 저는 18대 국회 했지만 이런 국회는 겪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행이고 그사이에 민주당이 현안질의라는 형식으로 중인들을 이렇게 불러내거나 한 부분들은 국회법에는 잘못됐지만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오늘 중인 채택을 철회한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간사를 뽑았으면 국회법 49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개의일시 그리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절차를 정회하고 형식적으로라도 거치고 해 줘야지, 이 자리에서 그냥 정해진 거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국회법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님께서 양측 간사를 불러 모으셔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합의를 보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지금 그 속개되는 회의에서 배부를 하게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위원장께 항의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간사 간 협의, 제가 알기로는 배준영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지금 중인 철회의 문제 그리고 주질의, 보충질의의 질의시간 문제를 포함해서 이미 협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가 있다라고 하면 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혹시 오늘 운영위의 충분한 현안질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의사진행발언은 피감기관에서 추가로 나와야 할 출석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께 추가로 출석 요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사진행발언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출석해 계시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가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중인 채택을 한 게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 이 모 씨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나흘 후에 이 모 씨가 포함된 모임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 8월 당시 이 사안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다 떠난 상태입니다. 몇 안 되게 남아 있는 분이 바로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이분이 그즈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아홉 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분인데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의구 부속실장 오후에 출석할 수 있게끔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장님,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접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석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님 혼자 계십니다. 경호처장 한 사람만 지금 보좌를 하고 있고 모든 수석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정수석만큼은 대통령실로 복귀시켜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바로 이 시각 대통령님이 사실 고립돼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만 민정수석만큼은, 과거에도 우리 국회가 양해를 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한 사람 정도는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만큼은 대부분 거의 국회운영위에 출석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주현 민정수석만큼은 복귀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회에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민정수석님 복귀하시고 강의구 부속실장님이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정회 때 우리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이소영 위원과 같은 취지의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전례 없는 일이다, 부속실장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적 연관성 전혀 없는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7월 31일, 소위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하는 그날 수차례 통화한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제의해 주신 대로 오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반드시 출석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의사진행발언 세 분의 발언이 끝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장 박찬대** 지금 간사들끼리 나가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정회 안 됩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고의로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어요.

간사님 두 분 나가서 회의해 주시고 고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태효 차장님 오셨지요? 저 발언대로 좀 가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의 배석자시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외에 또 어떤 배석자들이 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어떨 때는 비서실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날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날도 있는데 보통 안보실만 따로 할 경우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비서관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정 위원 7월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유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을까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차장님, 참 희한한 게요,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가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날 점심 이전에 회의가 끝났을 것인데……

○고민정 위원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국방부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

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 대통령이 수시로 누군가에게 전화는 하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평소에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면 물어보시는데요. 그날 일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된다고는, 제 지식에는 지금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날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그 회의 이후에, 800-7070 전화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고민정 위원** 안보실장님 계시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고민정 위원** 800-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것 제 번호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혹시 안보실 보좌관실 번호입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아니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4' 자로 시작하는데요.

○**고민정 위원** 그렇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7070 번호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처음 듣습니다.

○**고민정 위원** 처음 듣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고민정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명함을 통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번호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고민정 위원**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지요?

잠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내부 업무들, 그야말로 살림살이 이런 것을 총무에서 다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고민정 위원 전화번호가, 이 800-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저는 사실 안보실장 라인을 좀 의심을 해 봤는데 '4' 자로 시작한다고 확인을 해 주셔서 결국 안보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방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큰 덩어리 두 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고민정 위원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지요? KT에서 직접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것은 국가안보와……

○고민정 위원 무슨 국가안보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 회선 관리는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회사들도 KT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설교환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회선 관리 업체라든지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총무에서 하는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 재배치하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올 초에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전문가가 손을 만져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서관님께서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되어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설교환기를 관리했을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계약 관계는 당연히 총무비서관실에서 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다 총무에서 하시잖아요.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정 위원**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것도 충분히 총무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것 증거인멸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회선 재배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시기에 교체를 할 경우에 증거인멸에 해당되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끊어 주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회의를 왜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내선번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요.

○**고민정 위원** 아니……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청와대에 저도 근무했습니다. 사람 빠진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성국 위원** 시간 지켜 주세요.

○**고민정 위원** 사람 바뀐다고 전화 바뀌지 않습니다.

○**정성국 위원** 고민정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고민정 위원** 사건이 있어야 번호가 재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제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위원장 박찬대** 질의 먼저 하시고.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고민정 위원님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런저런 질문 하셨는데요.

○**고민정 위원** 상대 위원 이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선배 위원님들?

○**임이자 위원** 매너 좀 지켜요!

○**고민정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임이자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왜 끼어들어 갖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박찬대** 시간 가고 있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강명구 위원** 채 상병 사건은 어쨌든 소중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제가 초선이고 과문해서 그런지 이것이 정말로, ‘특검’ ‘특검’ 하시는데 이게 특검 할 정도의 문제인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격노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서 외압을 행사했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격노하면 특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특히 또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질문이 쇄도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 상병이 안타까운 순직을 한 지 1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 대민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1년여 동안 이른바 외압과 항명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의 차 이를 두고 충돌해 온 사건입니다. 외압이라는 관점과 주장 그리고 항명이라는 관점과 주장이 충돌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다툼이 있었지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채 상병 사건은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도 머지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선 지켜본 연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비서실장님,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특검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 여부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수사 결과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알고 있거로는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디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의 수사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한 10여 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그 정도 시점으로 짐작해 봅니다.

○**강명구 위원** 실장님, 그리고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외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서실장님, 외압입니까, 항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박 대령도 김계환 해병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정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전언에 전언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는 데 반해서 다른 한쪽은, 지금 항명 부분은 직속 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것이 의혹을 키우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모른 채 정치적으로 공방만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외통수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와 거기에 따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수가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위원님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쟁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1년여 동안 끌어온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조속하게 종식하고 우리가 다른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명구 위원** 비서실장님, 제가 발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이 말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21년 9월 27일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정의이고 본인들을 향하는 특검은 적폐들의 수법이 되는 것인지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어쨌든 이러한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국민들에 걱정을 더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속히 아무튼 이러한 논쟁적인 어떤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첫 수순은 결국 수사 당국과 사법절차에 달린 것이 아닌가,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2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 인사말도 하고 간사 선임도 하고 중인 채택을 했던 것을 다시 안 하게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와서 몰랐는데,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시작하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피감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피감기관에서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성준 간사님하고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민주당의 요청도 있었고 또 마침 대통령실에서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됐다고 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은 위원장인 제가 합니다.

아까 분명히 실장께서 오늘은 중인으로 출석하는 줄 알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지 않았고 관련 유인물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유인물은 가지고 왔습니다. 배포가 안 됐을 뿐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뭐 이렇게 말을 금방 또 바꾸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장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언 위원** 국회의원 광장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아까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아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기밀사항이라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광장언 위원** 그렇지요? 전화번호는 원래 전화받는 사람, 그러니까 전화 수신자의 전화기 화면에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사항에 나오는 02-800-7070이라는 번호가 뜬 거고요.

그러면 이 02-800-7070은 기밀사항입니까, 기밀사항이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장언 위원** 수신자, 그러니까 수신자 전화기 화면에 출력된 번호인데요.

02-800-7070이 대통령실에 설치된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

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곽상언 위원**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에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 사항입니다.

○**곽상언 위원** 일단 그게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도 확인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께서 ‘외압인가, 항명인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외압이라는 것은 전언만 있는 것이고 항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진행 중이니까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혹시 지금 수사기관에 ‘외압은 전언만 있는 사건이고 항명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 항명만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상언 위원** 그걸 어떻게 잘 아시지요? 수사기관도 아니신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전언만 있는지 어떻게 아신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채 상병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관심 있게 이 사건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경위를 언론을 통해서 또 전언을 통해서 많이 들어 온 제 판단과 제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다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그러니까 2023년 7월 31일 월요일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곽상언 위원**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위 격노했다고 알려졌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4분 후인 11시 54분입니다.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그 전화를 받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박정훈 대령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하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혹시 이런 언론 보도 본 적 있으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비슷한 언론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비슷한 언론 보도가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읽어드린 것이고 정진석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본 적 있으시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를.

○**곽상언 위원** 들은 적 있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곽상언 위원** 국가안보실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2022년 5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2023년 7월 31일 11시 회의에는 참석하셨겠네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구체적인 날짜를 쑥 집어서 물어보시지만 웬만한 회의는……

○**곽상언 위원** 아니,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규칙적인 회의는 다 들어갑니다.

○**곽상언 위원** 이날 회의는……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결석하는 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결석해 왔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가끔 그날에 외부의 강연이나 어떤 공식 초청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데 본인이 참석 안 하셔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대통령이 참석하시지만 1·2·3차장 중에 선별적으로 한두 사람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 7월…… 8월 오기 전의 회의에는 제가 아마 보고 때마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까요.

○**곽상언 위원** 아마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날도 참석했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곽상언 위원** 그때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안보실에 계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 당시에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겠네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비서관이 그때 현안마다 관계되는 비서관만 들어갑니다.

○**곽상언 위원** 그때 그 채 상병 사건 보고를 임기훈 비서관이 한 것 아닌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제가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곽상언 위원** 아까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격노라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로 낮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한 건가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것은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고 질책할 때가 저는 화를 내실 때라고 봅니다.

○**곽상언 위원** 당일, 그러니까 7월 31일 11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모욕적인데 대통령이 마치 매일 화나 내는 사람처럼, 회의 시간에 수석보좌관들에게 격노나 하는 사람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관으로서, 수석보좌관으로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에?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더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인력이 검찰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받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특검이 가동되면 법률 판단을 못 받습니까? 아까 법률 판단을 받아야 할 단계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수사기관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를 통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종면 위원** 실체적 진실은 뒤로 가고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그 입장 변화가 없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지켜봐 온 제 의견과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종면 위원**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는,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통화기록, 이미 다 드러난 것이어서 새롭지는 않지만 실체적 진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질의시간 무려 한 5분여를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5시 51분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18시, 오후 6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역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6시 21분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7월 31일 통화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46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합니다. 오전 9시 51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번호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가 걸려 갑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정오 34분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하고요. 바로 이어서 56분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합니다. 1시 36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2시 7분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3시 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5시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오후 8시 55분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8월 1일은 딱 한 통이 있었군요. 임기훈 비서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오전 11시 24분에 전화합니다.

8월 2일, 이날이 가장 바빴습니다. 대통령실이 돌아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시각이 12시 7분, 12시 14분에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12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에게 재차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32분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2시 48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지요.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세 번째 장관을 찾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 2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그리고 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1시 3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은 유재은 관리관에게, 3시 1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3시 17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3시 40분 신범철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려 3분 36초 동안 전화 걸어 통화합니다. 4시 16분 이시원 비서관이 신범철 국방부차관에게, 19분에도 이시원 비서관은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4시 45분 유재은 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거의 이어서 4시 45분—읽기도 힘드네요—이시원이 유재은에게, 4시 46분 유재은이 이시원에게, 그리고 4시 59분 국가안보실 보좌관실로 MBC에 보도된 그 800 번호로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5시 20분 이시원 비서관은 임기훈 비서관에게, 5시 29분 임기훈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 갑니다.

이래도 실체가 없습니까? 아래도 특검 안 해도 진상규명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노종면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통신·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전후에도……

○**노종면 위원** 채 해병 사건과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도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7월 10일 북한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되고 18일 미군 병사가 JSA 견학 중에 월북한 사건이 있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고 또 순직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차례 북한의……

○**노종면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이해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챔버리 사고가 있었고 국방혁신위 2차 회의가 있었고……

○**노종면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유엔군사령부 간담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노종면 위원** 답변하실 시간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한미연합연습 등……

○**노종면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이렇게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면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과의 통신·통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입니까?

○**노종면 위원** 질문권을 침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답변 시간 드린다고 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증인 태도가 저래도 되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시는 분이?

○**위원장 박찬대** 실장님,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상세하게.

○**노종면 위원** 제가 이해를 하면 그만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생활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잘 못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실장님은 의원 활동 하실 때, 상임위 활동 하실 때 답변 안 끊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주로 답변을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 시간 확보해 주세요.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께서 통화기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저 또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당시에 집중됐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상황을 입증하시려면 그 상황이 있었을 때의 통화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통화기록이오?

○**노종면 위원** 통화내역을 제출하시면 돼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통화내역이오? 통화내역은.....

○**노종면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통화내역은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게 돼 있지요.

.....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받을 때, 다른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은 6선 의원이시고 국회부의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6선을 노리다가 박수현 위원님 때문에 뜻을 못 이루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강민국 위원** 좀 당황스립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그렇지요?

지난 21일 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한 청문회 한번 보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대충 지켜봤습니다.

○**강민국 위원**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청래 의원이 정말 평생 명예와 긍지로 사는 그 군인을 모욕을 주고 그리고 압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정활동을 오래하셨는데 잠깐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야 간에 정치적인 공방이, 늘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더라도 저는 제복 입은 공직자들에게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활동 가운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추궁과 질의도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제복 입은 공직자, 제복 입은 군인에게는 그 명예를 우리가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국회의 언사가 날이 갈수록 좀 거칠어지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정치 일선에 있던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회의 언사의 충돌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과 심정도 헤아려 주셔서 언어 순화에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사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보면 공작 사건인데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 이 양반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총회 남가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동부와 서부 두 개 총회밖에 없어요. 그런 총회조차도 없고 또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LA 영광의빛교회는 이미 폐업하고 그런 교회조차도 없고 그래서 그의 목회활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 목사라는 양반이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선교활동 목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종북 인터넷 매체를 창간해서 북한 찬양글을 올리는데 이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참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국민이다. 북한의 핵무력은 정당하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그 최 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 가지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의도된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그리고 그 배후가 누가 있는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민국 위원** 모든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받으면 다 국고로 귀속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대통령 영부인과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전직 국회의원들 구속된 사람들도 다 포괄적 뇌물죄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 말이지요, 이분은 보니까 행사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오고 공개된 사진에서만 보니까 최소 178벌의 옷이 있어요. 액세서리도 보니까 200종 능히 넘게 착용한 것으로 다 나와 있던데—이것은 지금 공개된 사진에만 나온 겁니다—이 김정숙 여사 옷, 이거 누구 돈으로 했으며 이거 국고에 귀속되어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 정도 질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운영회의 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보니까 혈세 낭비의 화룡점정, 묻지 마 해외여행, 논란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많았는데, 해외로 나간 횟수를 보니까 무려 48회입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아마 부동의 1위지요. 앞으로도 따라올 분이 없다고 봅니다. 백미는 보니까 2018년도 인도 방문 일정을 혼자 간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대통령 휘장을 띄하니 달아서 갔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타지마할 사랑이 너무 강하십니다. 타지마할까지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역대 영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휘장을 달고 해외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들어 본 적이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비교가 되는 게 2002년 5월에—이것은 공식 초청한 겁니다—유엔총회에서 초청을 이희호 여사께 했는데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이때 이희호 여사는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타고 가십니다. 아주 비교되는 사례 아닌가요?

그리고 전용기에서 사용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 3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내식비가 또 문제가 많지요. 6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뭐 세프 초청해서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4인 가족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당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실장님, 식당에 가면 식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밥 먹고 나면 식기 놔두고 오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청와대 집기, 기구를 양산에 옮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과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인도 방문 예산은 문체부 예비비에서 신청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어차피 정진석 비서실장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님의 공주·부여·청양 후배 국회의원 박수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공주·부여·청양을 잘 지켜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오늘 저도 현안질의를 바로 이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주질의에서는 이 질의를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현안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TV 뉴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의를 오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중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이 뻔뻔한 장군의

군복이 과연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저는 채 상병이고 채 상병의 가족이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님, 10·29 참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혹시 이마저도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로 만들지 말기를 비서실장님께 충고합니다.

어제 저는 지난 총선 때 비서실장님과 함께 후보로서 토론을 벌였던 부여의 한 교회 주일예배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 이런 목회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칼럼의 제목은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8000원어치를 훔친 40대 연구원이 주변에 거짓 증언을 시키며 죄를 숨기려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분은 물건을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친척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할인점 직원을 무고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다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목회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됩니까. 인간이 이렇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하십시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과 제가 함께 잘 알고 있는 이 공경하는 목사님께서 비서실장님께 간곡히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외통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 박수현 위원 이 일정의 시급성상 제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권고했고 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강제징용의 역사 수록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도 에도 시대로만 기간을 제한한 꼼수까지 동원해서 기필코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위원회 앞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비서실장님,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엊그제 우리 외교차관이 일본 외교차관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그런 전방위 노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시급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사, 외교부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사를 임명해 놓았는데 이 세계유산위원회 특징상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반대를 하면 이것을 통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비서실장님, 외교부를 통해서 이 대사에게 유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강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 발언을 정확하게 좀 할 생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위원님. 법사위 문제하고 사도광산,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수현 위원** 사도광산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사위 문제 잠깐 말씀드리고……

○**박수현 위원** 이따가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사도광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군함도에 대한 대응과 큰 차이가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경청했고 메모를 했으니까 정부 당국에 전해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사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박수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시간 드릴게요, 제가.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것을 지연하거나 반대를 해 오면서 사실 이것이 귀 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론으로 발표를 했고 또 비서실장께서는 후보로서 그 당시에 법안 3종 세트를 특별법으로 발의하셨지요. 저도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 이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고 공약이었습니다. 혹시 선거 이후에 비서실장이 되시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공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과제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국회사무처의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도 예산 배정은 물론이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쟁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사위 말씀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자리에 출석한 제복 입은 군인들은 특정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연인들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

문에 위원님께서 규정하시듯이 나쁜 군인으로 등식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어졌던 제복 입은 군인을 향한 모욕, 질타, 저는 그것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고당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출석한 공직자들은 어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자연인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상대로 큰 범인인 양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특정해 가지고 그렇게 등식화해서 질책하고 모욕을 주고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국민적 의혹에 휩싸여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답변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 제복을 입은 군인도 존경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

○**위원장 박찬대**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대구 달서구병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박수현 위원님은 8년 만에 오셔서 그래도 감이 아직 살아 계시네요,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하나는 고 채 상병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장병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가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온데간데없어요.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사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실을 밝히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어디서 진행하고 있지요, 이것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아니면 진상규명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조사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힘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밀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들게요.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들까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발족이 되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밀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의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공수처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꽁이더라. 공수처 해체하자’, 공수처 해체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특검을 주장하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서 국민 한 켠에서는 저게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이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을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실체적 진실을 국민의 한쪽 편에서는 또 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특검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권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권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채 상병 문제가 보고되고 논의가 되었고 거기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그것이 외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7월 31일 날 이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 전제가 무너지면 지금 소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용인시 병의 부승찬입니다.

경호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코바나컨텐츠는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전에 경호대상시설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대상시설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가시는 곳은 경호대상구역입니다.

○**부승찬 위원** 경호대상구역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때 어찌 됐든 카메라를 들고 갔잖아요. 경호 실패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부승찬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상의 경호 실패인지.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 실패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호구역으로 들어온 곳에는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사실상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와 촬영장비를 갖고 온 것은, 저희가 착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부승찬 위원** 인정만 하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부승찬 위원** 인정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인정하고 저희가 경호를 좀 강화해서 새로 보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보실장님,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지난해 이문희 전 비서관하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 대화 내용이 도청됐잖아요? 미 CIA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부승찬 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것은 저희하고 미 측 사이에 소통이 있었고 그 사건이 아직 지금 미국에서 사법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인 조치는 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자체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승찬 위원** 보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때 제가 사실 서울에 있지 않아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우리 김태효 차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청과 관련돼서?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부승찬 위원** 예,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박찬대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안보실 주요 간부들의 도청에 대한 노출 정도를 다시 조사했고요. 현재와 같은 인프라에서는 도출이 안 된다고 다시 결론이 났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이 실제로 도청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직 수사 중이라면서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개인 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여러 가지 종류의 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폰으로 어떤 내용을 대화하시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부승찬 위원** 개인 폰에 대한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개인 폰,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개인 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정책을 다루는 부서여서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냥 정보를 주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들어가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호처장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실장님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장관급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직급상 실장님이 위시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실장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경호처장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비서실장을 시켜서 했다면 그것 제2의 차지철 아니에요?

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부승찬 위원 개인적 명예훼손을 권리기관인 비서실장한테 고발인, 고발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직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통령실 이전 합법적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봅니다.

○부승찬 위원 왜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헌법 82조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읽어 주시지요.

○부승찬 위원 헌법 82조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2조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역대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부승찬 위원 아니, 아니요. 실장님,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이전 한 겁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합법적이라고 보시냐고만 여겼어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면 돼요.
합법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당선되고, 3월 10일 날 당선 확정되고 3월 14일 날 오후에 일개 사인인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국방부로 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시설 전체를 비워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당선되고 3월 14일 날 통보를 하는 게…… 우리는 국무회의, 국가정책 주요 정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합법적이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국무회의 의결을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 완전히 7개 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예요. 앞으로 계속 따져 물을 텐데요. 합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불법이라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부승찬 위원** 아니, 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이전이 불법사항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전히 사법적인 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지금부터 밟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다음은 서미화 위원인데요. 서미화 위원은 시각장애인인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1.2~1.7배의 시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미화 위원에게는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1.5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9분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두 분의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충상 위원은 지난 회의 때 무슨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오지 않으셔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오셨습니다, 증인신문은 아니지만 협의하에서. 그다음에 김용원 위원은 퇴장 돼서 오셨어요, 다시. 알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 지명으로 지금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위 직원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지금 인권위원회를 온갖 막말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로 엉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이런 위원들 인사에 대해서 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원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이 아니지요.

김용원 위원은 현재……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나오셨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나왔습니다.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은 현재 채 해병 수사 은폐 협의와 직무유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요?

대답을 간단히 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본인 생각이시지요.

아마도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경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김용원 위원은 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도—진행이 되면—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채 해병 사망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김용원 증인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7월 19일 채 해병 사망사고 직후 군인권조사관 직접 파견 지시했지요?
파견 지시했지요? 대답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집중해 주세요.

7월 19일 채 해병 사망사고 직후에 국가인권위 군보호조사관 파견 지시했느냐고요, 조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파견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서미화 위원 그러면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입회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또 채 해병 장례식장 가셨지요, 7월 21일. 그때 박 대령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수사를 당부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렇게 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서미화 위원 그리고 8월 2일 박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고 보직해임 당하니까 바로 일주일 후에 수사 회수 기록을 즉시 경찰청에 재이첩하고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보류하라는 규탄 성명서 직접 발표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그것을 규탄 성명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 발표했느냐고요.

그러면 성명서 발표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 요지는……

○서미화 위원 아니, 핵심 요지 묻지 않았어요. 성명서 발표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로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발표하셨지요, 성명서?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좀 멈춰 주세요.

김용원 위원 답변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8월 14일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증인은 8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가 박 대령 구제의 최후의 보루로 믿고 8월 14일 날 오전 11시경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8월 14일 날 증인은 연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 증인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일이 8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만나려고 연가 신청한 거예요, 8월 14일?

김용원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8월 14일 오후 3시쯤에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서미화 위원 아니, 그날 연가를 낸 게 이종섭 장관 만나려고 냈냐고 물었잖아요. 질문에 좀 집중을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서미화 위원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서미화 위원 그러면 이날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강원도로 갔습니다.

○서미화 위원 잠깐만요.

만나려고 연가 낸 것 아니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8월 14일 날 갑자기 김용원 위원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갑자기가 아니고 그 전 주말에 통화를 하고 싶다고 군인권조사과에 요청을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그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연락을 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날 연락해서 통화했다는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서미화 위원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장관이 김용원 위원이 전화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누가 위증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날……

○서미화 위원 자, 말이 다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됐는지 어떻 는지……

○서미화 위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금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답변하고 다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용원 위원님, 혹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하면서 지시받은 거 있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종섭 장관이 저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치에 없어요? 그러면 지시한 거 없다 이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지시한다 하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면 지시가 아니지만 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이종섭 장관이? 뭐 요청한 거 있어요?

통화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통화하신 거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통화한 이유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서미화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경찰로부터 회수한 자료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옳으냐, 타당하냐에 대해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님, 답변이 할 때마다 다르시네요, 지난번 한 거랑.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다르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난번에는 권고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님, 공수처에 통화기록은 제출했어요?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이잖아요. 통화기록 제출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당사자 본인은 발신통화내역은 확보할 수가 있으나 수신통화내역은 당사자가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 냈냐 안 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기록이 확보 안 돼서 못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서미화 위원 아니, 1년 이전의 통화기록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발신통화기록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수신통화기록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발신통화기록 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발신통화…… 제가 받은 전화이기 때문에 발신통화내역은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공수처에 제출했냐고 묻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없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서미화 위원 없는 자료를?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지금 국민들이 뭘 믿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공수처 그냥 폐지시켜요. 폐지시켜요.

○서미화 위원 다른 분들 조용히 해 주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위원님, 오이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회의에서……

○서미화 위원 증인!

- 위원님,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실조차 없습니다.
- 서미화 위원** 그런 사실 없으시다고요? 지금 이렇게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십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무런 정황도 나온 것이 없고 왜곡·조작만이 있을 뿐입니다.
- 서미화 위원** 피진정인 이종섭 장관과 군보호관인, 인권위원인 김용원 위원이 통화를 하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위법하지 않습니다.
- 서미화 위원** 인권위원이 인권위원회법 모르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잘 알고 있습니다.
- 서미화 위원** 52조,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인권위원은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어떤 비밀도 누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서미화 위원** 저도 인권위원 해 봤어요. 어디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인권위원회법에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위원회법 잘 알고 있습니다.
- 서미화 위원** 어떻게 위원이 조사 중인 사건을 갖고 피진정인하고 통화를 해 놓고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그것도 채 해병 사건 직접 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채 해병 특검법이 가동되면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서미화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오전 질의는 신장식 위원을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장식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고, PPT 띄운 다음에 시간을 좀 진행시켜 주시지요.

- 시작하겠습니다.
- (영상자료를 보며)
- 첫 번째 PPT 보시면 8월 2일 날 사건기록 이첩과 회수 이루어졌던 긴박했던 하루인데요. 통화내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대통령실 관련자 통화만 보면 대통령이 장관에게 3회, 차관에게 3회, 비서관 1회, 직접 개인 폰으로 통화하셨고요. 조태용 안보실장은 장관에게 2회, 차관에게 2회, 임기훈 비서관에게 8회 통화하셨고요. 이시원 비서관은 차관에게 4회, 임 비서관에게 6회,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1회 직접 통화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통화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 보고가 7월 31일 날 안보회의에서 없었다, 그 입장이십니까?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보고가 없었다, 오전에 계속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23년, 작년……

○**신장식 위원** 아니,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걸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파악할 수가 없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신장식 위원** 대통령비서실장 되신 지 얼마나 지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두 달가량 됐습니다.

○**신장식 위원** 두 달 동안에 7월 31일 날 이 핵심적인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나 이 사건이 지금 수사 당국에 의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김태효 1차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경위 파악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장식 위원** 김태효 1차장님,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없었습니다.

○**신장식 위원**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비서실장님은 모르세요? 보고가 없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비서실장님, 없었다고 지금 말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고가 없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김태효 차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정확한 답변을……

○**신장식 위원** 보고가 없었다, 대통령실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신장식 위원** 격노도 그러면 없었겠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격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세 번째, 개입도 없었다? 외압 개입도 없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고 사실을 여쭙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수사 당국이 판단하고 가려낼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본인은 어쨌든 외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장에 불과하겠지요. 결국은 수사 당국에서, 사법 당국에서 가려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PPT 세 번째, 조태용 안보실장님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작년에 국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직접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인데 저렇게 틀어도 됩니까? 저희가 동의한 바 없습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동영상을 이렇게 틀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 시간 좀……

○**신장식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 부분은 배준영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영상과 관련해서 ‘회의 시 영상자료 재생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우회적 발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재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한 보도된 뉴스, 영상 등 음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단순 음향은 상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간사 간 합의를 해야지요.

○**배준영 위원**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녹취라든지 유튜브 영상 재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불가한다……

○**김정재 위원** 완전 엉터리지요.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여야 합의를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요.

○**신장식 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아니, 국회운영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니까요?

○**신장식 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간사님, 여야 합의를 해야지요.

○**고민정 위원** 일단 질의 들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 질의를 들으세요.

○**김정재 위원**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배준영 위원** 국회법상에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질의를 들으세요.

○**고민정 위원** 일단 질의 들으시지요. 질의 들으시고 나서 협의하시지요.

○**김정재 위원** 이런 막가파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신장식 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국회의원 처음 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고민정 위원** 질의 들으시지요, 일단.

○**위원장대리 박성준**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지요, 영상 출현 이것 안 됩니다.

○**고민정 위원** 김정재 위원님, 질의 들으시지요.

○**김정재 위원** 영상 출현 안 됩니다. 여야 합의 있어야 됩니다.

간사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장식 위원** 이후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통화기록들을 죽 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 오전 9시 53분에 1분 55초 통화했고요.

○**김정재 위원** 우리 간사 뭐 하는 거예요?

○**신장식 위원** 오후 5시경에 3분 16초 통화했습니다. 임기훈……

○**고민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정재 위원** 우리 간사 뭐 하는 거예요?

○**고민정 위원** 김정재 위원님, 조용히 하시라고요.

○**김정재 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 잠시만요.

김정재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김정재 위원** 질의든 뭐든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고민정 위원** 질의 방해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질의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재 위원** 방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방해할 의사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끝나고 추후에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임이자 위원** 질의를 방해하기 이전에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위원** 질의를 듣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김정재 위원** 간사님, 방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배현진 위원** 간사님, 저희가 어느 상임위에서 영상을 이렇게 간사 간에 협의 없이 막ತ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지금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 아니에요.

○**김정재 위원** 아니, 저희가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배현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희 위원들에게 공지하셨어요?

○**김정재 위원**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고민정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잠시……

○**고민정 위원**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정재 위원** 아니, 여야 협의 없이 이렇게 영상을……

○**고민정 위원** 질의를 듣고 나서 하시라고요.

○**임이자 위원**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 진행을!

○**고민정 위원** 질의 듣고 나서 하시라고요!

○**임이자 위원** 회의 진행이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민정 위원** 뭘 똑바로 해요!

○**임이자 위원**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신장식 위원** 임기훈 비서관 거짓말한 것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배현진 위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신장식 위원**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 가르마를 타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동료 질의 중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지요. 정확하게 하고 가세요, 정확하게.

간사님, 뭐 하세요?

○**신장식 위원** 임기훈 비서관이 거짓말한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정재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조용히 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그게 두려우세요?

(「안 두렵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계속하게 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 간사님, 뭐 하세요? 간사님, 뭐 하세요? 아니, 우리 간사 뭐 하는 거야, 지금?

○**고민정 위원** 지금 과행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서미화 위원** 영상 틀어서 회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정재 위원** 배준영 간사님, 뭐 하세요? 협의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시만 조용히 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장식 위원** 저것은 아까 위원장님께……

○**배현진 위원** 간사님, 협의하시고 진행하세요.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라고요.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JTBC 영상이고요. 위원장님께 미리 확인을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을 트는 것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튼 겁니다. JTBC 영상이에요.

○**김정재 위원** JTBC는 KBS는 여야 합의하세요.

○**배현진 위원** 아니, 여기 초선 의원님이 몇 명인데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고민정 위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지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는……

○**배현진 위원** 조용히 계세요!

○**고민정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 제일 많이 끼어들잖아요!

○**신장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출처가 명확하게 보도된 뉴스, 영상,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순 음향은 틀 수 있다’.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 이야, 완전 폭압적이네.

○배현진 위원 아니, 그러면 막 틀면 되는 거지요, 저희도?

○신장식 위원 대통령비서실장님,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7월 31일 날 09시 53분 1분 55초, 17시경 3분 16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짓말한 거지요,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장식 위원 모르시겠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신장식 위원 안보실장님, 거짓말한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런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신장식 위원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세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임기훈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모르는 일이세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신장식 위원 아직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이 문제는 잘못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침 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법정과 국회에서의 증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별 하나 더 달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님, 이런 인사 타당합니까?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경질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장식 위원 왜 그러시지요? 이렇게 국회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도 진급하는 게 이 정부의 인사정책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PPT 하나 보실까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 사고 났을 때 군 관계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번 야단맞았고 그다음에 박정훈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은 것이다.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전언을 보면 보고도 했고 격노도 하셨어요, 야단이라고 했지만.

- 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모르는 일이고요.
- 신장식 위원** 그러면 경향신문이 거짓 보도를 한 건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께서 격노를 하셨는지 진노를 하셨는지 야단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 실체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들은 사람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분도 주장을 하지만……
- 신장식 위원** 비서실장님, 이것은 박정훈 얘기가 아니고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전언에 전언을 통해서 그런 주장과 자기 느낌을 전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 신장식 위원** 비서실장님, 잠시만요.
- 박정훈 대령 얘기가 아니고요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한 거면 대통령실 기강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위원** 이런 것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신장식 위원** 파악하실 생각 없으세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파악이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신장식 위원** 누가 이런……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고위관계자를 파악할 의사가 없으시냐고요.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이런 인터뷰?
- 정성국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경향들은 그쪽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설혹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보도된다 하더라도 매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장식 위원** 파악하실 뜻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 위원장대리 박성준** 신장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답변을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전부 기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실장님?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대통령께서는 왜 모든 기자들이 아는 개인 폰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도 출장을 간 국방장관에게? 저는 완전히 논리적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오전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7월 31일 날 안보관계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의 관여는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관여, 관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관여했다’라는 보도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실장님?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잘 모르겠습니다.

○ 윤건영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런 보도를 안 보는 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매일같이 스크랩하고 보고하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관여했다라는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를 안 봤다라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수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고……

○ 윤건영 위원 수많은 보도가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관련해서 관여했다. 그것도 두 차례나’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최소한 당시에는 보지 못했더라도 오늘 운영위를 준비하면서 Q&A 안에 그게 있었겠지요.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8년 있어 봤는데 그것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한테 그런 보고를 했겠지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게 언제 적 보도입니까?

○ 윤건영 위원 아니, 그것을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지요. 비서실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오셔야지요.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7월 31일 날 격노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PPT 한 장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11시에 수석보좌관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11시 54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어 놓은 것은 제가 추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를 달지 말아 주십시오. 이처럼 많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정리해 보면 대통령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에게 여섯 차례 전화하고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은 국방장관에게 열두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게 아무 일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채 해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 하루 동안 국방장관과 세 번, 차관과 세 번, 국방비서관과 한 번, 총 일곱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을 다 합쳐 보니까 36분이 넘습니다. 안보실장 등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과 방산협력 등의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방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윤건영 위원**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 때문에 36분인가 통화한 게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실장님, 내용을 확인 안 하면 오늘 운영위에 왜 오신 겁니까, 도대체?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도 계속 비서실장님, 안보실장님, 모든 참석자가 다 그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기억해서 오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안보실장 등이 언론에 나와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방산협력 등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시점에 통화, 지금 지적하신 시점에……

○**윤건영 위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에 대해 좀 짧게 이야기……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안보 현안, 외교 현안이 다루어지던 시점은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 날은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이 막 움직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의 전화가 39회나 있었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중간 하단에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청와대에 8년 있었지만 차관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5선 의원이시고 중진 의원이십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차관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 때문인가요?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 근무 수석비서관들은 일반 폰과……

○**윤건영 위원** 수석비서관이 아니라 차관이, 차관이 대통령 개인 폰으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아닙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차관이 대통령에게 일반 전화로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비정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물론 일반 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폰과 보안 폰을 겸용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실장님, 제가 다음…… 충분히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국방차관이 두 번에 걸쳐서 8분 전화를 하고요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관의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은 장관이 차관을 시켜서 당시 상황들에 대한 이행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차관과 장관과의 전화 소통이……

○**윤건영 위원** PPT를 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대통령실의 안보실 관련자들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비정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당시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무려 서른아홉 번이나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이게 우즈베키스탄하고 관련된 방산협력의 일이 라고요?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실장님, 저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위원님의 가정일 뿐이지요.

○**윤건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할 시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확인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용산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을 위한 일입니까? 대통령 관계자가 서른아홉 번이나 전화를 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세 번, 차관에게 두 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왜 전화를 합니까? 유재은 국방관리관에게 왜 전화를 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7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공직기강비서관이……

○**윤건영 위원** 답변은 마지막에 하십시오.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왜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못 합니까?

○**윤건영 위원** 답변은 마지막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전화통을 들고 오만 군데 전화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실체예요. 그런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특검이나 국조에 다 나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거짓말을 한 바가 없고요. 대통령과 관계 장차관 간의 전화 소통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의 어떤 부적절한 통화를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근거가 아니라 서른아홉 번의 통화를 보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느낌만, 느낌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윤건영 위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즈베키스탄 방산협력을 대화, 통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윤건영 위원** 알고 오세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포항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 이름이 공개되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제외한 행정관 등의 직원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직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국회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자료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입장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점은 반드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김정재 위원** 그리고 안보실장님과 차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와 최근 방송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안보·지휘체계가 거의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차장님께서는 두 분의 답변 한마디로 인해서 대통령의 안보·지휘체계가 그대

로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김정재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법들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쏟아 낼 것입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도 할 겁니다. 과연 이를 대통령이 입 꼭 다물고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다수당에 무릎 끓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야 악법으로 피해를 보든 말든, 국가재정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 언론에 국민이 속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빠진 음식을 내놓고 이를 가족에게 먹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단호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먹으면 탈 날 게 뻔한데도 음식을 어떻게 가족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열네 차례에 해당됩니다.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야가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매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 법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소요되면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사기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코인 사기 많습니다.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당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660회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에 행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설득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에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들이,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사회에 끼치는 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밸런스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손해 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여기의 수혜는 민노총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야당의 입법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불량식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산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국회운영위원회 때도 막말 등으로 운영위 회의 중에 사과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정회되자마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는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나쁜 벼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사석에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윤종군 위원** 본인이 말씀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말씀한 게 맞지요? 오늘 이 자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 워딩이 그와 같았는지는……

○**윤종군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운영위에서도 사과를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적절치 못한 막말, 갑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다시 사과드릴 용의가 없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시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시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난번에 한 차례 그렇게 사과를 하셨고 국회 상임위 정회 중에도 또 국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제안이 오신다면 고사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로서 자격이 없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절대로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실장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실 인사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누가 했느냐, 누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느냐를 밝히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JTBC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지요.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있는 듯한 카톡 대화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 모 씨에게 구명 로비를 하고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움직인 것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잘……

○**윤종군 위원** ‘예, 아니요’로 짧게 답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해결책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박절하지 못해서 아내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납득하기 싫으시겠지요.

아까 오전에 노종면 위원 질의에 ‘국가안보 현안이 많아서 통화가 많았다. 그리고 통화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총 265건의 통화와 문자, 8월 1일 단 하루에 118건의 통화와 문자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정말 8·15 연설 같은, 신년 기자회견 같은 이런 큰 일을 할 때도 관계자들과 한 이삼십 번 정도 통화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으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 정부 때 미국 소고기 수입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이, 최고 권력이 나서서 이렇게 많이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활발한 소통과 통신·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종군 위원** 이 정도 통화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과 군 당국 간의 통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좋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 하실 거라고 이해하고요.

모든 것을 양보해서,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임성근 사단장, 도이치모터스 이 모 씨, 강의구 부속실장, 김건희 여사의 모든 통화기록을 포렌식해서 통화내역을 복원해서 국민께 보고하면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대한민국의……

○**윤종군 위원**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우리나라의 한국병 중의 하나가……

○**윤종군 위원**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제기가 마치 가짜뉴스 의혹의 성을 쌓아 가지고……

○**윤종군 위원**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한국병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언론 좀 보고 사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종군 위원** 권익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권익위도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권익위에 달린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익위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은……

○**윤종군 위원** 장소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장소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장소를…… 예,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국가안보랑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국가안보랑 상관이 없다고 단언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어떤 상관이 있는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에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윤종군 위원** 아니, 명품백이 대통령,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명품백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국가안보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시설물 전체가 보안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실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비서실장님, 오전에 민주당 노종면 위원께서 대통령 격노 추정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하고 하루에 수십 통, 며칠간 수백 통 통화한 사실의 일부를 제시하며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보 현안 때문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안보 현안을 비롯한 다른 관심사도 있었겠지요.

○**이소영 위원** 슬라이드를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근방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또 발사 또 발사, 한미연합 연습 등등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안보 당국하고 활발하게 통화한 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화면을 보시지요. 노종면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8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시 14분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2시 20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소속 박 모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합니다. 12시 40분 국가수사본부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13시 42분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합니다. 그 직후인 13시 50분 유재은 씨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수사자료 회수 취지의 연락을 합니다. 결국엔 19시 20분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합니다.

실장님, 공직기강비서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업무 하는 비서관입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탄도미사일과 외교안보 현안도 담당을 합니까? 왜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직후에 경찰 소속 파견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을 하지요? 언제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는데요.

○**이소영 위원** 아까 수많은 이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이 질의했는데 비서실장님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법사위나 이런 다른 회의에서 들은 얘기는 통화 당사자였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비서실장님,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이도운 홍보수석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 빌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6월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당일에 대변인 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맞습니다.

○ 이소영 위원 홍보수석이 검토하고 내보내신 건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렇습니다.

○ 이소영 위원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렇습니다.

○ 이소영 위원 여쭙는 그 자리에 홍보수석 다 포함해서 계셨던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렇습니다.

○ 이소영 위원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 이소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진표 의장 회고록 내용은, 슬라이드 4번 보여 주시지요.

독대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게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제가 이해하는 것은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게 왜곡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1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2번,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내 본래 진의가 왜곡된 거다. 3번, 다른 전제를 여러 개 붙여서 얘기했는데 그중에 생략하고 편집한 거다. 보통 이런 것을 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라이드 5번 보여 주시지요.

대변인실 입장문을 보면 ‘왜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곡의 근거, 이게 뭘 뺐다는 것인지 아니면 A를 B로 얘기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뭐가 왜곡이라는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 발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길래 왜곡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뭐가 왜곡이라는 겁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 이소영 위원 그러면 슬라이드 5번 보여 주시겠습니다.

입장문 볼까요.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 사실은 인정도 부정도 없고 반박도 설명도 없이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기에 적혀 있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150명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조작된 거다, 이것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당시에 많은 언론이……

○**이소영 위원**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것 하나만 대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많은 언론이 당시에 바닥에 어떤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 넘겨 주시지요.

슬라이드 6, 방금 말씀하신 것, 각시탈이 오일 뿐였다, 바닥에. 이것 다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12월 5일에는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 이것 정식 언론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슬라이드 5번 다시 넘어가 주시면, 그다음 설명이 이거예요.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았다’ ‘민주노총 때도 차선 열어 인파 관리를 했다’. 이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 사건이 유도되고 조작됐다는 거랑 상관있는 얘기입니까? 이것 차선 개방 안 한 것은 용산구청장이든, 아니 경찰청이든……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어쨌든 차선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 그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복합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 문제 아니에요? 유도된 거랑 상관있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하시는 거지요, 입장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119 신고 내용도 공개하게 했다’ ‘최근에 이태원특별법까지 수용했다’,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튜버 주장 답습한다는 거랑……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위원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당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119 신고 내용 공개한 거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당시에 경찰이 어떻게 그 시위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열어서 관리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왜곡이고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리고 그전에 여의도에서……

○**이소영 위원** 수석님.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규모 불꽃축제가 있어 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그것 경찰이 어떻게 인파를 관리했습니까?

○**이소영 위원** 수석님.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차선을 열어서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비서실장님과 홍철호 수석님께 제가 질문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 오후 이어서 이어지는 운영위원회들 질문을 들어 보면 정부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특히 우리 국회의 어떤 소통에 굉장히 장벽이 있다라고 정무수석님 좀 느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느낌을 물어보시면……

○**배현진 위원** 예, 그냥 짧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5월 31일 갤럽의 여론조사를 참 눈여겨봤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22대 국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22대 국회를 개원하기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새로운 국회에 당부하는 말 1번이 화합과 협치 그리고 2위가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좀 우선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월 말, 이제 7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질문에 안보 관련 그리고 현재 수사와 조사 관련해서 최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이른바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지요—그 많은 소설들을 엮어서 추정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래도 운영위도 열고 또 다른 분야에, 많은 정책 분야에서 국회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정무장관을 부활한다'라는 이 뉴스를 접했는데 이러한 개각 구상을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배현진 위원** 제가 추정하는 뜻이 맞을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무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1대 국회 시작 지점인 2020년 5월에도 문재인 정부 또한 당시 여당인, 국회 여당과 소통이 원활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부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매번 국회 때마다 이러한 소통의 역할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국민의힘의 한 의원으로 느끼기에도 대통령실이 2년 차를 다 지나오면서 많은

역할과 또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그것을 조금 더 국회에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같이 소통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더 상냥하게 소통하는 큐레이터의 기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무장관이 신설된다고 하면 정무수석실의 역할과 함께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위원님. 15년 전에 제가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마침 주호영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제 평가입니다만 그 당시에 국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얼마 전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과의 김치찌개 만찬회도 여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당시에 정무수석님께서 가셨지요? 개혁신당 전당대회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당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 하는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정부의 개각 이후에 정무장관이 신설된다고 하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상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22대 국회가 국민들 보기에 참 불쌍사납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협치와 국회 관례를 존중하는, 그 오랜 70년 넘는 국회 역사를 잘 이어받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시작된 상황이 맞습니다.

전 국회부의장으로서 그리고 다선 의원이셨던 비서실장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국회의 의회민주주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의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위원님. 제가 20대 중반부터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했고 서른아홉에 국회의원이 돼서 한 25년 정치활동을 했으니까 근 40년 가까이 국회 출입을 했던 경험이고 이 국회가 제 평생 일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국회가 더 나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벽두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좀 더 대화와 태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이에크라는 정치철학자가 일갈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국회에서 대화가 죽고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소중한 국회의 유산인데 이 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그 자리를 입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 22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경구이고 정부에 있는 저희들도 정말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거꾸로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화와 태협, 협상과 태협이라는 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방금 말씀 나눈 대로 우리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 모두의 정치적 혜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많이 필요한가요?

○**천하람 위원** 아니요,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2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여기 한번 봐 주시면,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존경하는 광장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 중에 제가 사용하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제가 지금 가려 놨습니다마는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애초에 일체 기밀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중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셨다가 교섭단체 간 합의하에 중인을 철회하셨다고 하시는데, 중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짓 답변을 제재해 주시고 02-800-7070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즉각 확인 후에 답변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결코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내부망 검색을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비서실장님, 지금 천하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저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대통령실 관련된 전화번호가 저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기밀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파악하시고 800-7070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기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로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할 권리가 저에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대통령실 전화번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도 울산시장선거 방해 사건 있었지요. 민정수석 특검 방해 사건 있었지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이런 자료제출을 요청했었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기밀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명함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번호의 몇 개 번호가 노출돼 있다라고 해서 전체 번호에 대해서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례나 상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런 통화내역을 통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통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관되게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찬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입법부의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은 입법부의 동료 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요청은 대통령실 또는 인권위원회를 보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인 저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1분 드리면 될까요?

○**이소영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1분 하고……

○**김정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고 현안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 7070 전화번호가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번호를 누가 어디에서 언제 썼는지 밝히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수사에서 빼라는 외압의 핵심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정한 1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 번호가 어느 사무실의 누구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면 국가기밀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비서실장님, 이소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의 원칙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가 공개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위원장 박찬대** 전화번호 일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02-800-7070에 대해서 보안상의 문제だ라고 하면 양당의 간사가 일람하는 방식으로 보안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두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공개가 아닙니다. 공개가 아니고요 육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보안상의 문제도 같이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두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정재 위원님 1분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왜 저는 1분입니까, 다른 분들 2분인데?

○**위원장 박찬대** 다 1분 드렸습니다.

○**김정재 위원** 의사진행하고 관련해서 발언을 하기로 했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의 발언은 의사진행과는 관련 없이 사실 주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 당 소속 주진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저희가 묻고 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진우 위원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재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운영위의 원활한 진행에 큰 방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공정한 진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왜 다 정청래 위원장 닮아 가려고 그래, 정말. 좀 제대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찬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대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시고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 국민들한테.

○**위원장 박찬대** 국민들한테 욕 먹는 거는 누군지 잘 확인하시고요.

○**김정재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비서실장님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으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절하지 않고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을 시켜 청탁 내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인품이나 경력은 하등의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실장님께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후 윤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 했다는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원래 같으면 그렇게 인파가 몰릴 곳이 아닌데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이삼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저는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의심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했다는 겁니다.

홍보수석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MBC, KBS 등 공영방송들이 이태원 참사 유도 사건에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왜곡해서 알렸다’는 입장인 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떤 말씀을 나눴건 간에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임광현 위원** 홍보수석님,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것도 그 의도가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김진표 전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것은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지요.

○**임광현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표현을 왜 왜곡을 했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왜곡했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께서 그 발언을 하시고……

○**임광현 위원** 아니, 어느 부분을 왜곡…… 저기 결재를 했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다음에 취한 태도를 보면 충분히 이러이러했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지금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데요.

참사 직후부터 사고가 아니고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 이야기들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파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현장에 무슨 탈을 쓴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미끌미끌한 기름을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미끄러진 거라든지. 그런데 김진표 전 의장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과 문맥상 너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인파가 많으면……

○ 임광현 위원 홍보수석님!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차로 중에 하나만 열었어도 충분히 압력을 분산 할 수 있었는데……

○ 임광현 위원 홍보수석님, 지금 제가 묻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왜 경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 임광현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홍보수석님?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임광현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사인이, 돌아가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사고 직후에 대통령께서……

○ 임광현 위원 참사 현장에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가장 먼저 현장에 참석하셨고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 임광현 위원 참사 현장에서 압사를 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소방관이 설명을 하니까 ‘압사? 뇌진탕이라던데’ 이런 식의 설명을 대통령이 덧붙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닥에 뿌려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글쎄, 그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국민들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날 밤새 대통령께서는 사건 현장 통제 본부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길래 다음 날 아침 현장에 찾았을 때 뇌진탕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까? 뇌진탕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수석이 챙길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임광현 위원 혹시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따로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참사가 되는 것 맞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일 날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한동훈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광현 위원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공식 라인의 보고보다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 **임광현 위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언론에…… 그러면 위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태도가 뭐예요, 그게?」 하는 위원 있음)

○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경고 좀 한번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찬대** 예.

이도운 홍보수석,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국민의 대표입니다.

○ **임광현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사고를 막지 못해서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 **임광현 위원** 대통령께서는 진실을 밝히고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 사실이라 기보다는 위원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임광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마치셨습니까?

○ **임광현 위원** 예.

○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이자 위원**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실장님, 마음이 상당히 많이 착잡하시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점심 먹고 국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어느 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에 이렇게 피켓들을 내려놓은 것을 보니까 ‘채 상병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렇게 쓰여 있는 팻말들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쪽 질문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격노했냐 안 했냐,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서 대통령뿐만 아니고 장관과 다수인들이 통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외압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다, 그리고 탄핵……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더니 오후에 들어와서 제가 잠깐 들어 보니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는 이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에 매달릴까. 아니, 채 상병 영결식 때 이재명 대표 왔습니까? 와 봤습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그렇게 채 상병 걱정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영결식에 오신 적 있습니까?

민주당 보면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이것을 감성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대통령 혐오를 조성합니다. 한미 FTA 소고기 괴담이 그랬지요. 천안함 폭침, 여기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위원들 계실 겁니다. 세월호 괴담 만들어 냈지요. 사드 전자파 괴담 만들어 냈지요. 그리고 나서 서로 언론들과 맞물려 가지고—여기서는 좌파 언론들이지요—특검·국정조사 요구하고 그다음에 촛불집회 하고 결국은 집권,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집회로 인해 가지고, 참사에서 시작해서 촛불집회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저는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2017년 3월 10일 날 했는데 본인은 4월 10일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어떻게 희생된 학생들한테 고맙다라고 쓸 수가 있을까.

현재도 한번 봅시다, 현재. 지금 채 상병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아주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여기서 제일 가슴 아파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계속 격노하셨냐 안 했냐. 격노의 실체가 있습니까? 격노를 본 사람만 알지 전해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격노 내용이 있습니까?

통화기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일이 많으면 통화할 수 있는 거지요. 통화 실제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외압으로 막 이끌어 가면서 김건희 여사 아는 사람 또 엮어서 거기에 또 엮어서 강의구 엮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움직여서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난번 우리 이태원참사 특검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가서 이재명 대표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념하는 데서 여기는 또 거꾸로 ‘고맙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돼서 참사를 겪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비통하고 애통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참사 난 테 가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가서 고맙다 그리고.

제가 아는 ‘고맙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거나 즐거운 것을 저는 고마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위원님 지적을 잘 새겨듣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괴담 ‘뇌 송송 구멍 탁’도 가짜뉴스로 밝혀졌고 ‘사드 뒤티’도 결국은 가짜뉴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괴담과 의혹의 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진실의 힘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괴담과 의혹은 해소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다른, 정말 채 상병 짚은 우리 청춘, 짚은 장병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체도 없는 격노, 실체도 없는 전화 통화기록만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 속에서 대통령실에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사람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렇게 엮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계시는 안보실장님, 모든 정책 실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도 계속 채 상병 특검을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성적 선동을 시작해서 대통령 혐오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번에 한번 했던 학습들을 다시 되새겨서 정권에 대한 찬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짓과 가짜 뉴스의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7월 19일이면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들께서는 채 상병과 최근 훈련병 사망 등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아이들 군대에 보내기가 겁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청년들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가미카제로 여겼던 어느 장성의 무책임한 막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쳐 버린 윤 정권 심판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요구하는 국민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비서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안녕하세요?

○**정을호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장성의 가미카제 발언,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이 말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얘기해 주시면……

○**정을호 위원** 실장님도 혹시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 말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해병대원을 만났는데 어느 한 해병대원이 ‘더 강도 높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은, 특히 대한민국 해병은 강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아니, 강군이라는 말하고 이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군이 국가가 필요할 때 죽어 주는 게 강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 보위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는 것이 구국의 간성이고 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입니다, 이 말은. 임성근 사단장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군말 없이 죽어 주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거짓말이 국회와 국민 모욕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했던 과거의 발언이 재판 및 군사검찰 자료, 언론들을 통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은 국회를 대표했던, 국회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과 중인 등이 이렇게 벼젓이 거짓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의 많은 거짓말 중에 심각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2023년 8월 21일 국방위에서 자신은 사령관과 독대를 가진 적 없다고 발언했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종섭 장관이 결재 사인을 했고 또한 결재보고 이후 후임 사단장 인사를 합의했다고 김계환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곳 국회운영위에서도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2023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이었던 조태용 전 안보실장은 위증을 했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등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거쳐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통해 국가

안보실에 전해졌고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입막음까지 하면서 챙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기훈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3분 16초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의 위증과 거짓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뭐가 거짓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채 상병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서 확인된 명백한 증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지금 수사 당국에서 실체적 진상에 대해서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버젓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수사 결과를 듣고 나서……

○**정을호 위원**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태용 안보실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만연된 위증과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처벌 방안 등의 제도개선도 서둘러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는 이렇게 질의하다가 막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처음 보네.

○**정을호 위원** 지금부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은……

○**임이자 위원** 가지가지 해 좌우당간, 가지가지.

○**정을호 위원** 임이자 위원님 조금만 조용히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질의하다 말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말 못 해요?

○**정을호 위원** 좀 멈춰 주시지요.

○**박성준 위원** 예의를 좀 갖추세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예의는 이만하면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박성준 간사님 보다는 예의 잘 갖추고 있어요.

○**정을호 위원**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정을호 위원**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열심히 하려면 제대로 해요.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박성준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정을호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 고민정 위원 가르치세요?
- 임이자 위원 내가 언제 가르쳤어요?
- 정을호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배준영 위원 그만 좀 하시지요. 그만 좀 하시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면 질의를 하시지 질의하다 말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 발언권도 안 얻고 말이야.
- 고민정 위원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 이소영 위원 간사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 정을호 위원 들어갔잖아요, 시간에!
- 이소영 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시간 아닙니까?
- 정을호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 이소영 위원 위원님, 다른 사람 질의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임이자 위원 어디 있긴 여기 있지요.
- 고민정 위원 처음 봅니다.
- 이소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기본도 없이 원칙도 없이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부여받아서 하는 질의시간에?
- 임이자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원칙은 무슨 원칙이야.
- 정을호 위원 아니, 무슨……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 이소영 위원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님!
- 배준영 위원 서로 정리해서 점잖게 하시자고요.
- 이소영 위원 아니, 지금 끼어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 윤종군 위원 먼저 이렇게 하는데 뭘 서로 정리를 합니까?
- 배준영 위원 아니, 피장과장 아닙니까? 진행하시면 되지요. 그만하시고 진행하시지요.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정진욱 위원 뭐가 피장과장입니까, 지금?
- 배준영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 윤종군 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 정진욱 위원 뭐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뭐를 했는데요.
- 윤종군 위원 말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도발을 했지,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 정진욱 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 이소영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에 그러면 봅시다.
- 배현진 위원 초선 의원님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헷갈려 하시면 민주당 간사님께서 어떻게 질의하면 된다고 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종군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 중에서 임이자 위원같이 저렇게 한 사람 있어요?
-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소영 위원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그 질의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 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지금 정을호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 배현진 위원** 하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하십시오.
- 윤종군 위원** 아니, 배 위원님이 위원장이에요, 지금? 의사진행하십니까?
- 배현진 위원**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 윤종군 위원** 저기서 임이자 위원이 먼저 도발했어요.
-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 윤종군 위원** 본인이 위원장이냐고요. 왜 하라 마라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 배현진 위원** 본인은 위원장이…… 없다 대고 삿대질이에요!
-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 윤종군 위원** 뭐라고요? 임이자 위원이 앞에서부터 잘못하셨잖아요.
-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 윤종군 위원** 실수를 했으면 사과라도 하고 해야지.
- 배현진 위원** 지금 틀린 말 했어요? 하시겠다면서요!
- 윤종군 위원** 어디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래요, 정말.
- 배현진 위원** 막말이 어디 있어요? 막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말 중에!
- 강민국 위원** 아니, 누가 막말해? 윤종군은 지역구 어디야!
- 정성국 위원** 아니, 무슨 막말을 했어요?
- 배현진 위원** 위원님, 막말이 어디 있어요? 하시라고요! 제가 막말을 어디 했습니까? 무슨 막말 했어요?
- 윤종군 위원**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 배현진 위원** 아니, 무슨 막말 했어요? ‘하세요’가 무슨 막말이에요.
- 강민국 위원** 거기는 아주 초선이구만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와. 누가 막말을 한다는 거야.
-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 정진욱 위원** 강민국 위원님! 초선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 강민국 위원님! 초선하고 무슨 상관 있어!
- (장내 소란)
-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앉아 주세요.
- 강민국 위원** 막말한다니 그런 거잖아.
-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앉아 주세요.
- 정진욱 위원** 똑바로 하세요!
-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 정진욱 위원** 똑바로 하시라고.
- 강민국 위원**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나!
-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앉아 주세요.
-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아니, 당신이나 똑바로 해!

○**정진욱 위원** 위원님, 똑바로 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박찬대** 자,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어디서 손가락질, 막말이야, 정말로.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퇴장시키세요, 그러면. 정진욱 위원은 막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이야기 안 합니까?

○**위원장 박찬대** 앉아 계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부터 조용히 하세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정을호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세요. 아직 정을호 위원님 질의시간 1분 40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수월하게.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입 닫으라니요!

○**김정재 위원** 입 닫으시면?

위원장님, 말씀 취소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박찬대 대표 퇴장시키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 박찬대 위원장님, 입을 닫으라고요?

○**김정재 위원** 국회의원한테 '입 닫으시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자기 시간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강민국 위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강민국 위원** 아니, 박찬대 대표가 우리 위원보고 입 닥치라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사과하십시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하십시오!

○ 위원장 박찬대 왜 그게 사과할 내용이지요?

○ 김정재 위원 사과해야지요.

○ 배현진 위원 입을 닫으라니요?

○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 김정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입 닫으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 배현진 위원 열토당토않게 그런 촌스러운 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 위원장 박찬대 입 닫으세요.

지금 1분 40초 남았습니다.

○ 고민정 위원 배현진 위원님 때문에 진행이 안 되잖아요. 배현진 위원님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요.

○ 배현진 위원 진행하고 싶으면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하십시오.

○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입 닫으라고 한 것은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찬대 아니, 그럼 계속 입을 열라고 합니까?

○ 배준영 위원 아니, 위원들 간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요.

○ 위원장 박찬대 자, 조용히 해 주세요.

○ 배현진 위원 사과하시라고요.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해 주세요.

○ 배현진 위원 사과하시라고요.

○ 위원장 박찬대 소란을 떨면서 현안질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질의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국민의힘 위원들 사과하십시오. 질의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마음을 좀 가라 앓히시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1분 40초 남았는데 질의 이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배현진 위원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 받아 주십시오, 간사님!

○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2분을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 저도 우리 간사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질의 중간에 끼어든 위원에 대해서 사과 받아 주십시오. 아래 가지고 질의하겠습니까? 본인의 질의시간은 보장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위원 질의할 때 저희가 끼어들었습니까?

○ 배현진 위원 예.

○ 김정재 위원 예, 끼어들었지요.

○ 고민정 위원 언제요?

○ 배현진 위원 끼어들었잖아요, 고민정 위원께서.

○ 김정재 위원 아까 오전에 많이 끼어들었어요.

○고민정 위원 언제요? 질의할 때 내가 끼어들었어요?

○김정재 위원 오전에 많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언제…… 그만합시다, 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찬대 아니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배준영 위원 거기 간사님이 얘기 좀 해요.

○박성준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진행해요, 진행!

○배현진 위원 아니,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위원님, 잠깐 좀 앉아 계시고요.

○배현진 위원 어디 어물쩍 그냥 넘어가요. 입 닫으라고 한 것 사과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세요.

○배현진 위원 사과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시고.

정을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간사님, 이것 사과 받아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냥 이렇게 진행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 박찬대 과열이 많이 되었는데, 먼저 일단 정을호 위원님 발언이 1분 40초가 남았어요.

위원님, 1분 40초 발언을 마저 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그런데 저의 발언시간에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께서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2분의 추가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2분 동안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 넣어 주시고요.

좀 과열되기는 했는데 다시 또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정을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은 사건의 이첩 보류, 사건기록 회수 등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안보실, 장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외압 행사의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 갔는데요. 그 결과 장관 결재는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임성근 사단장은 구명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조직적으로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그 누구도 조사 결과를 보류시키거나 수사 지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박정훈 대령이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자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수차례 통화했고 결국 국방부에 의해 결과보고서는 군사작전하듯 회수됩니다.

비서실장님, 휴가 중인 대통령께서 개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많은 지시를 내리셨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휴가 중인 대통령과 이종섭, 신범철, 군 수뇌부와 수많은 통화 이후 결국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은 항명 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비서실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휴가 중인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 분 동안 우즈베크로 출장 간 장관 그리고 국방부차관에게 전화하는 게 그러면 일상적인, 정상적인 활동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비서실장님, 혹시 깡통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깡통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들어 봤습니다.

○정을호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박찬대 이번에 한 템포 숙이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시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한 분씩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정성국 위원 2분 주세요, 2분.

○위원장 박찬대 2분이오?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박찬대 2분 드리고 이어서 노종면 위원님 2분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김정재 위원은 아까 1분 주고……

○김정재 위원 저는 아까 왜 1분 주시고……

○위원장 박찬대 2분씩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1분 줬잖아요, 1분.

○김정재 위원 저만 왜 1분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아까는 의사진행발언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1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2분으로 해요. 저만 1분 주셨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1분 드리시지요.

○김정재 위원 무슨 이런 고무줄 회의 진행이 있습니까?

○정성국 위원 아까 2분 주신다 해 놓고 또 왜 바꾸시나요, 마음대로?

○위원장 박찬대 말씀하세요.

○김정재 위원 그냥 미우면 밉다고 그러지 1분으로, 별을 그렇게 주시네. 2분 주세요, 2분. 위원장님이 2분 주신다면서요.

○정성국 위원 2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가지고 모자라겠습니까?

○김정재 위원 저만 미움받으면 되니까 2분씩 드리세요.

○위원장 박찬대 1분 가지고 모자라시겠어요?

○정성국 위원 예,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든지 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다만 학교에서 선생님도 학생에게 입 닫으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원내대표님 정도 되시는 위치시면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말에 있어서? 요즘은 교장선생님도 1학년 학생에게 입 닫으라는 표현 쓰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TV로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동료 위원에게 입 닫으라는 표현이 잘못 나왔다면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런 가슴 넓은 대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그런 표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와닿는 것은, 저희는 지금 소수 입장에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테 있어 가지고 소수의 입장이 돼 버리면 주장도 강해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런 데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 주시고 양쪽 입장은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배현진 위원님께 그런 표현을 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배현진 위원님께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때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님, 초선인 제가 처음으로 원내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의 질의시간 안에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의사를 표현할 때도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모습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저희가 다짐을 백번 해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서로가 다 뭔가 불만이 있다고,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검토해서 누가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끼어드는지, 누가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가려서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나 이렇게 맞서신 분들 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저보다 대부분 다 선배시니까 더 많이 경험하셨고 문제를 깊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대를 향해서 반말은 하지 않고 욕설은 하지 않고 또 상대 질의시간에는 끼어들지 않고, 이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주셨던 두 분의 말씀을 앞으로 의사진행하는 데 잘 참작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대통령비서실을 당대 최고의 인재로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제1 의무다’, 혹시 누가 말씀했는지 궁금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권력의 한 100배쯤의 권력을 가지셨던 박철언 전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유명한 외국 사람이 아니어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철언 의원님이라고 할 때 실망한 것은 현재 권력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들의 권력도 유한하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도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들어 보지 못했다’…… 당대 최고의 인재를 모으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를 숨기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모르겠다’, ‘채 해병 사건에 진실이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간략히 읽어 보겠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 로프) 등을 휴대하지 않았고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작전지도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해병대사령부의 보고서고요. 저 위에 보면 장관 이종섭의 결재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23년 7월 30일, 오만하고 걸핏하면 격노하는 권력이 개입하기 전의 날것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7월 31일 2시 30분 비행기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11시 40분인가요, 전화가 걸려 옵니다. 누군가가 격노함으로써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대통령의 유선전화가 끝난 11시 57분, 대통령실 유선전화가 아직까지 대통령의 유선전화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국회 설명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찰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분리파견되려 했던 임성근 사단장이 느닷없이 휴가로 바뀝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했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문입니다. 그 국민적 의문이 풀려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카톡방 보셨지요? 그 카톡방 안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제2차 주가 조작의 공범 이 아무개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외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아까 국힘 위원님께서 공수처가 좀 약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공수처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수사 중이면 특검 안 해야 합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검 위에 특검을 하는 옥상옥의……

○**정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놔두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옥상옥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수사 중이면 특검 안 해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특검이 있었지요? 이 특검의 파견 수석팀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팀장이오?

○정진욱 위원 예, 검사.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팀장은 모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잘 모르시지요?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띄워 놓은 게 멀어서 안 보이는 데요.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실시됐습니다.

그다음에 제복 입은 공직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박정훈 대령은 제복 입은 공직자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정진욱 위원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8일 입건할 때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초의 죄명?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항명수괴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집단항명죄의 수괴입니다. 집단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분의 격노 후 제복 입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고 당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강직한 수사관들이 전부 집단항명죄로 모욕당했습니다. 그것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은 군령이 생명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 상명하복이 군의 생명처럼 여겨야 할 규율 아니겠습니까?

○정진욱 위원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장관의 지시·명령을 어긴 항명 자체는 그건 피할 수 없는……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종의 여부를 여기서 논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기 계신 대통령실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국민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두 사람이?

그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진욱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오늘 여기 들어올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어떤 질의가 두세 개라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생국회를 쟁기겠다 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나온 질문들이 올모스트(almost), 거의 대부분 다 채 상병 관련이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순수한 뜻 또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정의감이 있었다 치더라도 앉아 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할 정도의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 상병 특검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고 대통령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이 사실을 단정 짓게 만들고 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분 정도라도 다른 어떤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해 심해 같은 경우도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경우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대통령실의 대표로서 정진석 실장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모습?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이 사건 자체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흐른 지가 꽤 되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그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수사 당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의혹 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겸허히 지켜보자 하셨던 말씀, 그것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채 상병 관련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다 나와 계세요. 지금 수석님하고 몇 분이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논의하려면 아마 안 나오셔도 되고 두세 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나 가지고 몇 시간, 하루 종일 시간을 끌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다 나와 가지고…… 민생 쟁겨야 된다고 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 나오게 만들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행정실이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맞느냐.

오늘 만약 정말 심도 있는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저도 대통령실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 왜 대통령실의 18명, 20명 다 나오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상윤 시민수석님, 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정성국 위원** 저는 아무래도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 임명 건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정성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외압이 느껴진다는 걸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1, 2순위가 나왔을 때 사립은 분명히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사학에서 결정하도록 해 줘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씀만 좀 언급을 하면 ‘숙대 총장후보 결선투표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그 1위가 총장이 되는 게 순리다’

그러니까 누가 총장이건 2명이 올라갔는데 그 2명 올라간 총장후보의 결정권은 사학에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우리 법은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결선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사회가 입맛에 맞는 현 총장을 선임하면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 현 총장 연임하면 국정조사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중인 출석 안 해도 고발한다는 식으로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좀 위압을 느끼잖아요. 장상윤 사회수석님, 그렇지요? 위압감 느끼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숙명여대 이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위압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사실 헌법에 보면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사립을 떠나서.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 선출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 후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됐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분이 됐어요. 총장이 됐단 말입니다. 2명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됐다는 말은 뭐냐? 여기 결정하는 분들이 이 말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법을 존중해야 되는 국회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다 아는데 어떻게 그 법을 집행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누가 총장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맞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하고 표명한 사람이 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수석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헌법기관이다, 국회다, 법을 지킨다 이러면서 제일 법을 많이 어기는 분이 지금 제일 다수 의석 차지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발언 한 것 다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 저희 국민의힘도 이것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하시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 추미애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무위원이 준법하도록 촉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법하더라도 그것을 옹호하고 그렇게 궤변으로 방어해 주는 게 맞을까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전자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추미애 위원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불법하지 않도록, 준법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추미애 위원 아까 직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군은 군령이 생명이다, 상명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군 사망 사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 사망 사건은 경찰청에 이첩해야 되는 것이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군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경찰에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추미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경찰 수사가 10여 일 후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은 항명 사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아까 알고 계시는 법에 어긋나는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게 왜 일어났지?’ 궁금해야 되고요. 또 이첩을 제대로 했는데 다시 회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첩했는데 왜 회수했는지, 누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바로 그 불법 회수를 당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많은 의혹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여 일 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수사 결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불법 회수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추미애 위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시는 항명은 어떤 뜻이지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데 따로 이해하는 항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상급자의 명령·지시를 어긴 것이지요.

○ 추미애 위원 상급자의 명령·지시가 법에 어긋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어긴……

○ 추미애 위원 국방부장관인가요? 틀림없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 추미애 위원 틀림없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 추미애 위원 그 말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PPT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사령관이라고 바꿨어요, 장관에서. 그런데 그것 바꾼 것도 두 줄 쑥쑥 그으시고 그냥 저렇게 바꿨어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문이, 윤석열 정부의 공문은 저런 식입니까? 누가 도대체 삭제를 하는 것인지 아무렇게나 줄을 쑥쑥 뭉개 버리고 ‘장관’에서 ‘사령관’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증언하시는 대로 저게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항명이 돼 버리는 것입니까, 저런 식의 공문에 의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어떤 서식인지 제가……

○**추미애 위원** 어떤 서식인지가 아니라 지금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장께서도 인지부조회에 걸리거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답변하는 대로. ‘국방부장관이 그러더라’, 보니까 국방부장관은 그 결재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으로 두 줄 뭉개고 바꿨어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8명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이미 문서로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장관의 결재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령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공문은 저렇게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갰어요. 사실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격노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만이…… 아까 헌법 82조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승찬 위원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사안도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군사에 대한 사안인 거지요. 당연히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문서로써 이 국방부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이 될 수 있을 거지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사령관이 저렇게 두 줄로 뭉개고 결재를 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누구 지시에 의했다는 그 말씀은 위원님의 추정과 추측일 뿐이지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준법을 촉구해야 될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엉터리로 사령관이 두 줄로 뭉개고 잘못 보고하지 않았나, 나도 혹시 속임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었더라면 장관이 저렇게 결재하지 않고 사령관이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 가지고 결재하고 저걸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데 위원님, 대통령이 격노를 했는지 진노를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고……

○**추미애 위원** 예, 두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게 아니고요.

○**추미애 위원** 저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지요, 외부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그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의 주장이고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추미애 위원**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전언을 한 사람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거지요, 무서운 세상이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는 지금 우리가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미애 위원** 재단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추가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제가 잘……

○**천하람 위원**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위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분들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몇 층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 이 부분 다음 운영위 전까지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통령실의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협조하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아마 논의를 좀 거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희가 무슨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공간, 지금 국가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층에 해당 디올백이 위치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보안에 큰 위협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된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러면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 당국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대통령실에 훌륭한 법률가 출신의 민정수석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계시는데 그 국고 귀속 여부나 어떤 명목으로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못 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비서실장입니다, 민정수석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판단을 우선 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하람 위원 더더욱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운영위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저 2층 증축이 됐지요? 관저 2층 증축 공사가 진행이 됐지요, 대통령 관저?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증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등기부만 봐도 2층 증축이라고 나오는데 차장께서 너무……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증축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주)21그램이라고 하는 업체, 국토부에 어떤 업종으로 신고돼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소관이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누구 소관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주)21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고 실내 건축공사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저 2층 증축 공사를 하기에 적합한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공사업체의 선정은 시공 능력이나 어떤 보안의식 등에 대한 경호처, 행안부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적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하람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관저 증축 공사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어도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건 행안부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엄격한 보안과 관리가 수반되는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하람 위원** 그러면 주21그램의 대표자가, 주21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6년과 2018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행사를 후원했고 또 전시 인테리어를 담당했고 또 주21그램의 회사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그저 우연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금전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천하람 위원** 그러시면 지금 해당 업체와 관련해서 원래 대통령실은 2022년 9월 1일에 관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가 갑작스럽게 보안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22년 11월 7일로 미룬 바가 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특정 업체의 회사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사가 대통령 주요시설에 대한 개·증축에 참여했다면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 업체명을 밝히지 않아 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 **천하람 위원** 해당 업체명은 여러 언론에도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실제 필요한 면허도 없이 무리하게 광속으로 수의계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안 공사를 못 해서 뭔가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추가 공사를 진행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행안부를 상대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될 대목 같습니다. 행안부가 계약의 주체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유정 위원** 정진석 비서실장님, 지금 대통령실 대표해서 나오신 것 맞다고 봐도 됩니까? 최측근 행정인력 맞을까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유정 위원** 최측근 행정인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실장과 비서관, 수석들 모두 그렇습니다.

○ **강유정 위원** 그래도 비서실장님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복 입은 군인, 장관 겹박하고 모욕한다 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 **강유정 위원** 했습니다.

오전에 권영진 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방금 추미애 위원의 녹취록 과정에서도 속기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요.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유정 위원** 지금 재판 중인 사항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강유정 위원** 받고 있습니다. 재판 안 끝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유정 위원**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항명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방금 말씀하신 제복 입은 군인 차별합니까? 내 편네 편 가릅니까? 이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까?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명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유정 위원** 본인은 자연인 정진석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판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미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유정 위원** 재판 중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재판에 영향을 주겠지요, 지금 비서실장이신데. 자연인 아닙니다.

800-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유정 위원** 구글 검색 지금 해 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국번에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좌르르 나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800-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사항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챗GPT에도 나오고 이것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대통령……

○**강유정 위원** 여기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재를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 안 한 겁니다. 번호 다 뜻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원칙적인 입장은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안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챗GPT랑 구글 플랫폼에도 다

검색만 하면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해 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안보라면서요. 그놈의 7070은 뭔데 그것만 이렇게 안보입니까, 다른 것 다 열리는데?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 정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 거쳐서 발표되는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강유정 위원 맞지요.

국무회의 거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이 긴박하거나 위급할 때는 일부 소수 참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월 3일 유전 발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이것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브리핑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비서실장이시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강유정 위원 아, 그래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현장에는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이 함께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닙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헌법 제89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인데요. 1호부터 17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4호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님, 모르셨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건 결정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 이것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5000억에서 많게는 1조 원대까지 규모가 추산되는 이 투자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보군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이 재정 정도는, 대통령 본인이 오히려 이 정도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브리핑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산자부는 ‘자원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국가재정 관련 중요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또 모순된 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헌법 제89조 제4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무회의 거치고 나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방금 말에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다가 지난 1월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석유나 이런 귀중한 자원은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패싱 국민 발표는 헌법 제89조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제13호도 위반한 건데, 2개 다 위반한 셈이지요.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수천억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아무 절차 없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동안 대통령실장님 뭐 하셨습니까? '800' 이렇게 노출돼서 챕GPT에 나오는데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러 여기 나와서 누구 두둔하시는 겁니까? 안보 어디 갔습니까, 안보라면서요? 대답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산이 필요한 사항,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유정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안 거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별도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브리핑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안보실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해병대원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를 굉장히 잘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실의 통화내역은 정상적인 안보 관련된 통화내역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엮어서 '수사를 외압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업무를 처리했는지 그걸 따져 보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장관은 어느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해서 군의 사기를 보호하고 군 수사체계를 헌법체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군이 수사권이 없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군 수사권은 이런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자주 수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전문

인력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보다 전문성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라는 것이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과연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 건에 권한이 없는데 왜 이 건을 굳이 했느냐 하는 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의 수사팀이 몇 명이고 며칠 조사했는지 아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14일인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 배치표 보니까 중앙수사단에 4명, 광역수사단에 12명 해서 16명이 수사를 했고요. 아마 그중에는 수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행정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열몇 명 정도가 수사에 투입됐고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8명을 입건해서 넘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원래 이런 복잡한 안전사고나 이렇게 할 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때 입건은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인데 안전사고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투입돼서 지금 1년 이상 가까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결론 내놓고 있지 않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주진우 위원** 경찰이 먼저 8명, 10명 다 입건해 놓고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아니요, 못 들어 봤습니다.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입건이 되면 입건된 군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건되면 불안해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또 소환조사 받지요. 여론에서 또 여론의 압박도 있지요. 또 낙인효과도 생깁니다. 입건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군에 아들딸 보내신 분도 있고 저도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군 사고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쉽게 입건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쉽게 쉽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본인들이 본인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을 빠져나가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본인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위원** 이거는 사망사건이라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에 가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군 장비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칡시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조사해서 대충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여덟아홉 사람 책임 있다고 물어서 국방부에서 구상권 행사해서 집에 암류하고 한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입건 대상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열흘 만에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걸 밝혀서 얼마를 입건했는지 보니까, 지금 자꾸 사단장을 봐줬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사, 상사, 중위, 중위 이렇게 실무진들까지 다 입건을

했어요. 그중에 특히 그 중사는 수영을 못하는 3명의 대원을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2명을 구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입건이 돼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전부 8명 중에 그래서 그 두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만 경찰로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런 것들 자체가 수사가 어설프게 조사된 상태에서 입건한 게 오히려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군 수사체계도 장병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의혹 사건인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 열흘 만에 민주당 관련 인사들 10명 주루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납득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일본 오염수 관련돼서 민주당이 선동했을 때 정부에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계속 사실을 알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자꾸 답변을 피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군의 어떤 수사체계나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라도 견건이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를 들어서 또 수사기록을 지금 찾아왔다라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수사기록을 찾아와서 어디 불태우거나 없앤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주진우 위원**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입건 범위가 너무 과도하니까 국방부장관이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 기록을 그냥 넘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명이라고 보고 일단 기록을 찾아왔고 다시 그 기록에서 더 조사를 많이 해서 더 기록을 두껍게 만들어서 다시 경찰로 그대로 넘겼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에서 빠지거나 일부러 빼내거나 사단장 관련 자료를 없앤 게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수사기록을 회수한 걸 지금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기록이 좀 더 탄탄해져서 넘어갔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 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정 실장님 정치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정권의 길흉화복, 흥망성쇠 많이 보셨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 박성준 위원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많은 정치학자나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위기 관리를 잘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디시전 메이킹(decision making), 정책 결정을 잘할 때.

그런데 이 위기 관리와 정책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개인의 캐릭터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참모진들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죽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캐릭터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상명하복식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지 대통령비서실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지 않고요. 제가 대통령을 지금에서 보필한 지는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은 참모들과 항상 숙의를 거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 박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결정 과정에서 모든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단을 내리는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 박성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인적인 책임이지요—그다음에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PPT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정진석 실장께서 채 해병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5월 29일인가요, 5월 달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 해병과 관련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 보면 채 해병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덮는 데 치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건으로 가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임성근 사단장을 경질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대목은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성준 위원 추후에 제가 이……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을 질책하신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해병이 민간작전 하다가 안타까운 순직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도대체 사망자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 생존자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과정에서 왜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왜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라는 질책을 하신 겁니다.

○박성준 위원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했고 이 문제가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질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이 전화 보십시오, 통화·문자. 앞서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통화·문자 내역 또 있습니다. 이게 8월 2일 상황이고 다음 상황 또 보면 수많은 문자 내역이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범철 국방차관이 8분 45초, 8월 2일 날 전화했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전화합니다, 3분 36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차관이 10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지난 입법청문회에서 신범철 차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회수 내용으로 통화했다’. 이게 핵심의 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했습니까?

신범철 차관이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회수에 대한 얘기 했다’, 사건 기록에 대한 회수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신범철 차관이 아마 국회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뭘 인정해요?

○박성준 위원 ‘대통령이 사건 회수를 명령했다’ 이렇게 인식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신범철 차관의 그 언급을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박성준 위원 신범철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정진석 실장께서 미국 거부권 사례만 얘기하는데 미국도 넉슨…… 원래 기자 출신이었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지요, 예전에? 그렇지요?

넉슨 대통령 보면 1968년도에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당시 민주당의 험프리보다 0.7% 앞서서 이겨요. 그런 가운데 72년도에 대통령선거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방어했던 장관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존 미첼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법률고문으로서 존 딘이라고 하는 법률고문이 실질적으로 워터게이트

트의 모든 방어책을 하는데 추후에 상원 청문회에서 존 딘이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 낙수 대통령이 사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여기 앓아 계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통령실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과거에 박근혜정부에서 '1. 최순실, 2. 정윤회, 3. 박근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요즘에 대통령실의 많은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자들 세계에서도 'V1, V2'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V1. 김건희 여사, V2.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모든 책임을, 모든 행사를 김건희 여사가 한다는 얘기가 언론계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많은 보수층 인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진석 실장이 여의도에서 정치를 오래하셔서 알겠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지요. 저도 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미국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로 작동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다고 해서 질책을 당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 질의는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은폐했던 그 세력들이 추후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의 권력구조에서 김건희 여사가 V1이라는 얘기가 왜, 여의도 정치라든가 보수층에 있는 인사라든가 보수 언론계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의 공수처는 그런 의혹을 벗기는 특별한 수사기관으로, 상설특검의 기관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이 지금의 공수처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본질의 마지막 차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질의가 국회TV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는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장님, 정책실장님, 국가안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헤드쿼터가 다 모였는데 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만 물어볼 것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민생을 많이 쟁기신다고 하시는데 물가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금리 문제는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생지원금을 쟁기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 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런 가정을 해 봅니다.

오늘 채 상병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마 내일부터 저희가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텐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는 2·3·4일 이 안에 채 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원내수석님 계시지만 사실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통과의례적인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19대·20대·21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대·21대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통과한 게 아예 없었고요. 19대에는 법안이 딱 하나 통과됐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헌정 사상 초유가 아닐 텐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채 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전주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전화번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얼마나 국민에게 큰 울림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 치고 대부분 다 군대를 갔다 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 치고 군대에 다녀온 아들을 가져 보지 않은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경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밝힐 겁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밝힌 편지를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고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것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7월 19일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리라는 의지를 밝히고 경찰청장도 만나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그런 감수성을 이용해서…… 아까 사드 얘기했지요? 당시 성주 참외값이 30% 폭락했습니다. 사드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광우병 사태, 우리나라의 경제 부가가치가 3조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요? 우리나라 횟집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아까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서실장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 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한 번 했는데요. 지금이 오전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4시 30분이 지났으니까 주질의만으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보통 주질의 마치면 잠깐 정회를 하는데요 아까 3시 반까지 쉬었기 때문에, 아까 쉬었다가 아직 1시간밖에 경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쉬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임이자 위원** 이제 그만 싸울 테니까 쉽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혹시 마무리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1분 정도를 추가하고 3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그냥 3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될까요?

○**서미화 위원** 아니요, 2분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예, 2분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고맙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작년 10월 윤 일병 어머니를 포함한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하자 이와 관련해서 김용원 위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모두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4월 김용원 위원이 갑자기 입장문을 바꾸면서 중앙지검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출한 처벌불원서 자료를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한 업무검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없는 총무비서관실로 지시가 내려와 국가보훈부로 전달이 된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지인 회사인 (주)21그램이 12억 원이나 되는 관저 공사비를 3시간 만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훨씬 넘어섭니다.

관저 공사 집행내역하고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상임위원님, 처벌불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찰에 제출되었으므로 검찰에서 공개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처벌불원서 관련된 초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직접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제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간사님, 따로 한번 협의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 관련된 국립묘지 안장 관련 자료와 21그램 관저 공사비랑 관련된 내용 대통령실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시설 관련 자료는 행안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계약의 주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찬대** 행안위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김태효 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7월 31일 날의 안보회의와 관련해서 채 상병 관련된 보고도 없었고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 맞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채 상병에 대한 언급은 참석자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없었습니다. 회의를……

○**고민정 위원** 대통령께서 채 상병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없습니까, 전혀?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고민정 위원** 채 상병의 ‘채’ 자도 들은 적은 없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그날 회의 주제는 제가 사전에 안보실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이 이슈가 보고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안 했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러나……

○**고민정 위원**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를 여쭤 겁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날 안보실의 보고가 끝날 때까지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여쭐 텐데요.

대통령실 안에 장관급이 누구누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고민정 위원**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책실장, 그렇게 3실장이 장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날 문제가 되는 11시 54분에 800-7070 전화가 국방부장관한테로 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밑에 하급자가 장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3 실장 가운데 1명이거나 아니면 대통령님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부속실장이거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비서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셨고 정책실장님은 관여가 없으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건 대통령님하고 부속실장밖에는 없습니다. 제 말에 이견 있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민정 위원** 부속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자기 의견을 누군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내에서요?

○**고민정 위원** 혹은 부처에게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들에게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것 말고요. 부속실 직원들 말고 부처라든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님 일정도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을 테니까 긴급한 경우에 부처와의 소통, 연락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 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온 것이 아주 대통령님을 접근거리에서 수행해야 하고 보좌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속실 장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쓰시겠습니까?

1분 더 넣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즉 부속실장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아래라저래라 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의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현재 2부속실은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현재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입니다.

○**고민정 위원** 김건희 여사의 지시도 받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지시를 합니까, 김건희 여사도 뭔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유령하고 하나요?

통상 부속실장은, 그래서 2부속실을 따로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드셨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은 여사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혹은 그 사람들의 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속실장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주로 부속실장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누구 회의 소집해라 그러면 그런 연락책 정도, 연락하는 업무를 주로 부속실장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연락만 하지 않지요. 대통령의 중요 지시사항을 전달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부속실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이나 실장이나 수석에게 하는 것이 지시사항이고 그 밑의 하급자에게 대통령이 전화 거는 것은 대통령이 궁금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전화는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맨 책임자에게 지시가 바로 내려가야 그 지시가 밑에까지 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상급자인 실장과 수석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오늘 기승전결 정말 참 정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서, 정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민생에 어려워합니다. 여기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또 경찰에서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고,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것인데 계속 정쟁으로 간다는 게 안타깝고요.

저는 민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석 나와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예.

○**강민국 위원** 시간 좀 스톱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미국의 고금리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전반적인 민생에 좀 다가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도

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수출 경기가 좋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한폭탄 같은 게 뭐냐면 PF 시장입니다. 그런데 PF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부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예.

○**강민국 위원**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예.

○**강민국 위원**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니까 주52시간제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수석님 동의하시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측면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먼저 선제적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PF 시장에 지금 금융 당국이 한시적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먼저 고금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소관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도 지금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정부가 이것을 하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적용 금리는 기재부하고 경제수석이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아닙니다. 금통위의 권한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한은의 금통위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답변을 가지시면 국민들이 되게 실망할 건데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아니, 정부가 알고는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조만간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음 PF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PF 시장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어려운, 특히 지방 건설업계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질서 있는 안착을 위해서 PF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서서히 건설 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지막 밸류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곧 발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ETF도 출시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김태효 1차장님, 잠깐 앞에 좀 계십시오.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에 맞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허위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격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제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효 차장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격노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의 격노 관련 보도는 어이가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안보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곽상언 위원** 혹시 무엇이, 어떤 이유로 어이가 없었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회의의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이 회의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기자이고 기자가 허위로 창작했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전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기사가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김태효 차장님은 언론 보도가 어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없어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언론 대응은 보통 대변인실, 홍보수석실을 통해서 나가는 데 안보실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내부에서는 일단 대응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이를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혹시 이 보도 알고 계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저는 못 들어 봤고요, 제 언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기사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지금 처음 듣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이 언론 보도도 어이가 없는 기사입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것은 법리의 내용 같은데……

○곽상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난 31일 그날 회의 당시를 묘사한 기사입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사도 어이가 없는 기사이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기사라고 봅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제가 보고 경험한 내용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곽상언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격노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야단치신 적은 본 적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이 채 상병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곽상언 위원 채 상병 이슈 말고 평소에.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다른 이슈로요?

○곽상언 위원 예.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는데 격노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질책에 대해서는……

○곽상언 위원 질책은 하지만 격노는 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곽상언 위원 야단은 친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곽상언 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마치시겠습니까?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노종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규모 그리고 기간으로 평가하는 질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참석자들이 동의하신 거지요? 이른바 졸속 수사 프레임…… 증거, 카톡 내용 그리고 음성 통화까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 있는 혐의자, 사단장을 빼 준

것이 본질이고요. 또 사건을 회수한 뒤에 국방부 재조사에서도 사단장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은 협의자와 죄명을 기재해서 법적 양식에 따라서 경찰에 넘기게 돼 있지요? 그렇게 사령관 결재, 장관 결재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넘어간 걸 사후에 정권이 통째로 나서서 회수해 온 것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본질입니다. 졸속 수사 프레임이 안 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 또는 배우자가 어떤 행사에 방문할 때 해당 장소에 대한 점검은 통상 얼마 전에 이루어집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행사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하루 전에 이루어집니다.

○**노종면 위원** 행사 주최자에게는 그러면 하루 전에 통보가 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건 행사 성격이 보안인지, 비공식인지 공식인지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집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주 APEC 유치위원회 발대식 사진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이고요. 사진 중에 원 표기가 된 사람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입니다.

비서실장님, 사업권을 유치하거나 국제행사 유치전이 벌어질 때 대통령의 멘토나 또는 최근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한쪽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람직한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노종면 위원** APEC 유치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기에는 김석기 의원도 계시고 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망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의 최근 또는 멘토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마 주최자로부터 어떤 초청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2016년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친인척, 비선,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청와대를 질타하셨습니다.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소신 변함없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음 PPT 사진 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2년 전, 2022년 6월 고 심정민 공군 소령 추모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추모음악회 장면입니다. 실장님은 저 사진 중앙에 나온 분을 아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당시에는 경주 엑스포……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중앙이면 어떤, 남성분을 말씀하시나요?

○**노종면 위원** 중앙 남자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옆모습만 봐서는 누군지 제가……

○**노종면 위원** 저분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고 저 당시에는 경주 액스포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저분을 모르면 김건희 여사와 친분 여부를 모르시겠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저는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장님, 다음 PPT 화면, 저게 최근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 답변 속기록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조금 전 사진 중앙에 나왔던 류희림 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배우자 참석하는 행사 언제 점검하냐 그랬더니 통상 하루 전이라고 그랬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하루 전에……

○**노종면 위원** 저분이 30분 전에 경호원들이 왔답니다. 저분이 주최를 했거든요, 저 행사를. 그게 가능한가요? 30분 전에 가서 안전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행사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노종면 위원** 성격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태는.

○**노종면 위원** 저 행사는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구미시을 강명구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민주당, 박 대령의 말을 근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의를 종합해 보면 격노 플러스 외압, 장차관들에게 수없이 전화했기 때문에 특검, 제가 보기엔 이 주장이 가지는 맹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박 대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듣지 않았고 들었다, 전언의 전언. 그리고 막상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잖아요. 그러면 수사 개입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조사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는 박 대령의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첩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건데 비서실장님, 저는 궁금한 게 박 대령께서는 이첩하지 말라 지시했는데 왜 이첩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그건 제 추측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1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질의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말을 빌려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특검으로 끌고 가서 어쨌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망신 주고 흄집 내서 특검으로 한번 끌고 가 보겠다라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초선 의원이 바라보기에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비서실장님,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법사위원회 회의하는 모습도 보셨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무튼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현장이기는 합니다만 오직 두려운 것은 국민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더 쟁기기 위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데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8년 만에 국회가 참 더 낯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제가 주제넘게 다른 동료 위원들께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어떻게 나 혼자만이 100% 옳겠는가, 상대방도 50% 옳을 수 있다, 나도 50%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국회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민주당의 선동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이 현상 그리고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 해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국민의 의견이 60~70%에 이르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이 모두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렇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집권당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탓은 아닌가,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은 늘 그렇게 그런 많은 질문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역지사지하는 또 내 책임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서로 국정에 임하고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님의 거부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 660회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77회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수평 비교해서 미국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숫자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관련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약 12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기간 그리고 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거부권 중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의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무조건 떼쓰기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2022년 10월 달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안은 초과생산량의 3%, 쌀값하락률 5%, 저런 조건이 되면 전량 매입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저렇게 보시는 대로 정부 선택을 대폭,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민주당이 성의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걱정과 여당의 우려를 수용하려 한 저런 안에 대해서 정말 한번 들여다보셨는가 여쭙고 싶고.

또 지난번 폐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 냈던 법은 정부의 관리위원회에,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에 저런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정책실장님, 민주당이 무조건 원안만 주장하는 떼쓰기처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정말 국민만 보고 또 야당의 진정성도 보고 그렇게 내용을 잘 살펴서 대통령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건의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떼쓰기만 하신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일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재의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 이외의 작물들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을 일정 수준 보장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작물로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시 과도한 재정 부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 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같이 합의해 주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도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입 안정 형태의 보험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통해서 수입 안정 보험을 하고 그다음에 직불제를 확대해서,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기본 직불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께 기초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이 좀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해서 또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그 수입 보장 보험 적극 도입도 관련한 반박을

제가 할 수 있지만……

○**위원장 박찬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반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서로의 의견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해 보면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실장님 의견도 압니다, 제가.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대**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를 소집하고 또 다들 중인으로 소환을 해서—물론 저희들이 회의 시작 전에 같이 합의해서 중인은 취소했습니다만—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뭔가 많이 나오리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또 긴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은 없고, 새로운 거라고 하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800-7070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밖에는 없고.

그동안 그냥 설로만 되거나 아니면 추측성 보도가 나왔던, 대통령이 7월 31일 날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노했고 그 격노 직후에 국방부장관에게 외압을 했다라는 그 의혹 그대로만 얘기하시고, 새로운 전화번호 800-7070 이것 마치 그럴듯하게 얘기하시고 또 비서실장한테 이 번호를 확인시키니까, 비서실에서는 당연히 이 번호를 확인해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챗GPT에 물어서 16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챗GPT에 그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챗GPT는 일반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02-800-로 시작되는 번호를 물으면 알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료로 들어가면 02-800-로 시작되는 번호를 물으면 이게 대통령실인 것 같은데 ‘전체 목록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02-800-7070은 어떤 번호냐고 물었더니 이게 대통령실의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냐 하면 MBC 뉴스예요. 결국 MBC 뉴스에서 나온 02-800-7070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게 대통령 외압의 통로로 된 전화번호인 양 또 의혹을 부풀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검사들이 앉아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못 믿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근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가서 국민들을 혼혹시키면 정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는 야당의 자세だ라고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 제가 만약에……

○**강유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켜봐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있으면 우리 공수처 해체 법안 공동으로 발의하자고요. 그리고 특검으로 갑

시다. 계속 앓아서 아무 근거도 없고 똑같은 얘기를, 매 상임위 내가 체크해 보면 채 상병 특검 질문할 때마다 똑같아요. 하나도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800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께서 대통령실 전화번호 파악을 지시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잠깐 간단히……

○**위원장 박찬대** 혹시 확인된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800 번호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그게 왜 기밀이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도 드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10여 개가 있고 그 10여 개는 대충 국민제안 홈페이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조달청 관계 또 조달청 홈페이지, 법령 관계 이렇게 해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콘택트가 필요한 번호만 일반인에게 10여 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한 것이고 그 나머지 800 번호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바로 이 운영위에서 내선 일체를 공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문재인 청와대 역시 대통령실의 업무 특성상 공개하지 못한다고 운영위 답변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강유정 위원** 사실관계 틀린 게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초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 자기 질의할 때 하셔야지요.

○**권영진 위원** 그러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또 해야 되는데.

○**강유정 위원** 아니요, 방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16개라고 했던 것은 챗GPT가 아니라— 속기록 확인하십시오—제가 분명히 구글 플랫폼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틀려서……

○**권영진 위원**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권영진 위원님 발언하신 건데요. 속기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용인시 병 부승찬입니다.

안보실장님, 오늘 합참의장과 통화하셨어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아니요.

○**부승찬 위원**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하셨어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안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8월 2일 날 국방부, 대통령실, 휴가 나간 대통령…… 그렇지요? 경북경찰청, 47회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오늘은 제가 사실 국회에 와 있어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뿐만 아니라 거의 통화를 잘 못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부승찬 위원** 대통령실 이전이 국정의 기본계획에 해당되지요?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대통령실 이전……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가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요? 의무사항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요, 그냥……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제가……

○**부승찬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답변하시고요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요, 나중에 하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아래 이 사업이 진행됐고……

○**부승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협조공문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법적인 절차 따지신다면서요.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국무회의 의결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의 회동에서……

○**부승찬 위원** 아니요, 저는 헌법 얘기하려고…… 아니, 헌법 얘기를……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부승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좀 잘라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산 배정까지 확답을 해 주셔서 청와대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부승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인수위 TF의 법적 설립 근거가 뭐니까? 인수위 대통령실 이전 TF의 법적 설립 근거가 뭐니까? 법적 설립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헌법에 기준하지요, 통상?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모든 대통령이 인수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부승찬 위원** 아니, 인수위 대통령실 이전 TF 설립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인수위 거치는 것 몰라요? 다 알지요, 왜 몰라.

예비비를 신청한 것 외에는 없어요, 전혀.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 **부승찬 위원**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면 떳떳하게 관련 공문들을 보내 주시면 되지요. 그게 국가보안, 국가안보예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부승찬 위원** 아니,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이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냐, 저는 그걸 묻고 있어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간에 이루어진 정책 결정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협력 아래 청와대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승찬 위원** 아니, 국회사무총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대통령실 이전하고 국회 이전과 관련돼서 비교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1년이 더 걸렸어요,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은 단 4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 합법적이면 자료를 내세요. 왜 자료를 하나도 안 내냐고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문재인 정부의 협력으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고, 저는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전폭적인 협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부승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5분 드리겠습니다.

○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나와 주세요.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나면 나왔다고 말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오시고 나면 시작해 주시고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나왔습니다.

○ **서미화 위원** 오전에 김용원 위원이 본인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는데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 **서미화 위원** 어불성설인지 본인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갓끈은 오얏나무고 오이밭은 신발끈입니다. 앞으로 잘 알지 못하는 말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알겠습니다.

○ **서미화 위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과 통화하고 나서 김용원 위원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8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8월 18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하려고 소집했겠지요. 그런데 김용원 위원이 17일 오후 5시에 갑자기 조퇴하고 다음 날 병가를 쓰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 내용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는 현실적인 악조건을 모두 돌파하고도 논의해야 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원회 권고가 무의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윤 대통령 격노를 듣고 김 위원님은 아마 이종섭 장관의 격노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종섭 장관처럼 혹시 02-800번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예, 아니요’만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현재……

○**서미화 위원**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미화 위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아니요’만 하시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박 대령에게 ‘수사 똑바로 해라’ 당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장례식장도 가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돌변한 것을 보면 절대권력 앞에서 꼬리를 화내린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갑자기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미화 위원** 안 물어봤어요.

인권위 운영규칙 20조에 따르면 긴급구제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임위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긴급구제 사건을 위해 상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임위원 맞지요?

대답 좀 하세요, 이때는. 상임위원 아니에요? 비상임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맞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 김용원 위원이 안 나와서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가 안 되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김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소위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이 기각됩니다. 기각시키려고 안 온 것 같아요.

화면 보십시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박 대령을 구제할 수 있는 재심이 있었습니다. 1월입니다, 1월. 재심 결과는 인용 1명, 기각 2명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서 계신 김용원 위원님이 기각으로 의결하겠다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들이 전원합의로 결정되는데 전례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원칙상 전원합의가 안 되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2023년……

○**서미화 위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관례이고. 저도 인권위원이었어요.

대답만 하세요. 원칙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2023년 8월 29일 날 박정훈 대령의……

○**서미화 위원** 대답만 하시라고요. 원칙인지 몰라요, 알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미화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서미화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들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는……

○**서미화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띄워졌나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8월 29일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데는……

○**서미화 위원** 인용 1명에 기각 2명인 이 결정을 인용 의견을 낸 다른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비상임 인권위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질문하지 않는데 계속 발언하시는 것은 위원의 발언을 지금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닙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찬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미화 위원님 계속하세요.

○**서미화 위원** 인용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서미화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전혀 사실을 왜곡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답변할 기회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드릴게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인용 의견을 낸 다른 위원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명을 안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한 사람의 인권 문제가 다수결 게임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용원 위원은 박 대령의 삶을 통째로 부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으로 박 대령 진정 사건을 갖고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미화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서미화 위원** 정진석 실장님, 채 해병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미화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발언시간 다 종료가 되면 답변할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미화 위원** 정진석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기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채 해병 수사 외압을 받고 있는 김용원 위원을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직 그 인선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모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실장님, 김 위원의 막말과 반인권적 인식이 위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무자격 위원인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어떤 기회에도 제가……

○**위원장 박찬대** 발언을 신청하고 하세요. 지금 질문하지 않는데 계속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조금 말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서 위원님, 질의가 끝났나요?

○**서미화 위원** 질의 끝났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막말을 하는 인권위원이라고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인권위의 회의,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서 저의 발언을 무조건 제지하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이 아주 장시간 계속되고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도 수시로 나와서 거기에 응해서 아주 짤막한 한마디 말, ‘무식하다’ 또는 ‘버릇이 없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한 것이 비난받아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 29일 날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긴급구제 신청 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만장일치로 했는데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도 적극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 30일 날 진정사건, 본 안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저의 그러한 의결정족수 해석과 적용은 정당하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의 전원위원회에서도 인권위원 6명의 지지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멋대로 기각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김용원 위원님, 잠시 그 자리에 계시지요.

막바로 이어서 이충상 위원님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요 이충상 위원님도 저쪽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채 상병 사건 진정 들어온 이후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 있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리고 나서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신원식 장관 만난 적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신장식 위원** 언제, 왜 만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이종섭 장관…… 제가 군인권보호관으로 취임한 이래로 이종섭 장관을 방문해서 한번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 신원식 장관 만난 시기를 말씀하시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신원식 장관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언제, 무슨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가 어렵고 군인권 증진을 위해서……

○**신장식 위원** 23년 12월 초에 신원식 장관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신장식 위원** 사건 심의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하셨고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직접 만나셨어요. 이게 박 대령 긴급구제 관련 건으로 이종섭 장관 통화 이후 입장 번복한 전례가 있고 정황상 수사 외압으로 의심하는 통화 이후에 신임 국방부장관을 만났다면 외부의 압력이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 통해서 김용원 위원에게 작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바로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은 사실의 왜곡, 조작을 넣고 있는 거고요.

○**신장식 위원** 그래서…… 잠시만요. 김용원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그만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말씀 좀 제지해 주십시오.

전원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것은 국회가 구태,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버릇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 발언 때문에 물의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요? 그 사과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서 발언한 것, 어느 게 진짜 김용원입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여야의 합의로……

○ 신장식 위원 제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

○ 신장식 위원 이충상 위원 나와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찬대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해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신장식 위원 이충상 위원 나와 주세요.

아니, 어느 게 진짜 김용원이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전혀 태도가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지금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장식 위원 이충상 위원님!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 신장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회의록 보시면 지난번에 김용원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이충상 위원님과 이야기는 했지만 상의한 적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분 중에 누가 도전하느냐와 관련돼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 신장식 위원 어느 분으로 합의하셨습니까?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저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 신장식 위원 지원하지 않겠다?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 신장식 위원 그러면 김용원 위원님이 지원하시는 것으로 두 분은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김용원 위원님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안했습니다.

○ 신장식 위원 그러면 김용원 위원님으로 정리가 되신 건가 보네요.

1분 더 쓰겠습니다.

두 분 내려가셔도 되고요.

이충상 위원께서, 한번 보시지요. 이충상 위원 저런 발언 하셨어요. 김용원 위원도 기레기, 기저귀, 훈련소 자살·자해 없다 이런 얘기 하셨고 다음에 군 사망 유가족, 군인권 보호관이 고소 고발하셨지요. 인권기구 모니터링 NGO 의장이 이충상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 표명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버릇 못 버렸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셨고 이충상 위원의 혐오 발언에 ‘예방교육시켜라’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있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셨고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지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인권위원장 겸증 절차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 두 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있으십

니까, 비서실장님?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있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평가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위원장님, 저 답변 시간 좀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예.

○**추미애 위원** 국회에 나와서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분의 입에서, 인권위가 좌파의 해방구다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시켜 주십시오.

무릇 인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고양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의 해방구라니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해당 질의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찬대** 해당 질의시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까 저한테, 제가 한 발언 좀……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충상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비서실장께서 연말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는 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연말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연말까지 판단하도록.

그러면 그 선물을 김건희 여사께서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에 받은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럴 겁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현행 법령에 위반됩니다.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지 않고요.

○**윤건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산현황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관은 8월 31일에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분이 외부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2년 이내에 판단해야 된다는……

○윤건영 위원 2년 이내가 아니고요. 방금 보셨잖아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그걸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기록을 요청해 봤어요. 2022년도에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을 기록관에 통보했느냐라고 했더니 126개를 통보했답니다, 목록을. 그 126개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법을 어립니까?

제가 추론을 해 보면 2022년도에는 이것을 일종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기록물화시킨 겁니다. 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2023년 5월 31일 날 기록관에 보고하고 8월 31일 날 목록이 보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그냥 단순한 선물인지……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물건인지에 대한 평가가……

○윤건영 위원 실장님, 단순합니다.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왜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왜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셨다니까요, 대통령실이.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매해 5월 31일 날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셨다고요.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아니,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아니요, 실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자료로 답변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간명하잖아요. 법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PPT에 띄워 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아니, 그러니까 통보와……

○윤건영 위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0조와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통보와 분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통보와 분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2022년도에 받은 126건은 어떻게 해서 분류하고 보고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그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윤건영 위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이렇게 법적 문제가 있는 것들은……

○ 윤건영 위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과 기록물관리 규정을 편의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당시에 받았을 때는 그냥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기록물화시킨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 할게요.

명품백 이외에 받은 게 또 있습니다. 전통주하고 화장품하고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물로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 윤건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화장품과 전통주와 책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 윤건영 위원 아니,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의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답변 못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정무수석 답변해 보세요.

보관하고 있느냐고요. 보관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것 소재에 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 없나요?

○ 윤건영 위원 마이크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에다 대고 답변해 주세요.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격이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소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위원 기록물이라면서요. 그래서 분류를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명품백 말고 어디 있느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합니까? 흥길동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흥철호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당 건당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의해서 통과시켰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13건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까지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현재 발의 상태고요. 또 추가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무위원들은 짹 다 잘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버지, 당대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방침인 듯합니다. 습관성 탄핵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칼춤에 맛 들린 망나니의 한풀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마도 이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아픈 회초리입니다. 결코 민주당에 부여한 횡포 면허, 폭주 면허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탄핵 놀이의 이유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엄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 11개의 혐의로 거의 매주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을 심산으로 지금 13개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을 쉬지 않고 남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권의 이런 해임이나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탄핵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바람막이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APEC 정상회의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대통령의 측근이 그 사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APEC 정상회의가 경주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신평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가 포항이기 때문에 경주에 자주 갑니다만 경주의 크고 작은 행사 그리고 지역 유지로서 모든 행사에 거의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저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 2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이면 될까요?

○윤종군 위원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1분 주십시오.

○윤종군 위원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진석 실장님의 오후 질의 답변 중에 ‘명품백 보관 장소가 대충 어디인지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요청드렸는데 ‘국가안보상 현장 방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사 간에 800-7070번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우면 양쪽 간사분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하시는 김에 이 건도 같이, 명품백도 간사 양당에서 1인씩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을 협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명품백과 함께 전달되었던 고가의 위스키, 전통주, 화장품 4종—책 여덟 권은 버리셨으니까 없을 것 같고—이것도 같이 물품도 확인하는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아까 오후 질의에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대통령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달에 익명의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관리·보관되고 있다,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해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BBC 코리아에도 나오고 여러 언론에 이미 인용이 됐습니다.

임기 시작해서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도운 홍보수석님,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기사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위원장 박찬대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윤종군 위원 언론……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관계자를 이용해서 나왔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런 기사가 있는 건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예.

○윤종군 위원 그러면 제때제때 비서실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님도 현황 파악을 좀 더 꼼꼼히 하고 국회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명품백……

○윤종군 위원 아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아직까지도 대통령기록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1월 달에 고위관계자 명의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 매체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 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정 실장님, 사진 좀 봐 주세요.

다른 것 다 떠나서, 대통령실에서 기록물로 결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통령실 입장처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진 속의 장소나 여사님의 책상다리하고 있는 자세, 옷매무시, 표정 이런 것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식기록물을 받는 공식 석상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기는 아마 관저 같지는 않고요.

○**윤종군 위원** 아니,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과거에 사저 근처 장소 같은데 아마……

○**윤종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사저에서 관저로 이사 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저게 그 명품백을 받은 장면인데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기록물을 주고받는 그런 품격 있는 자리로 보이시냐고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 사진을 가지고 영부인의 품격을 논할 만한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아니, 영부인의 품격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주고받는 그런 품격 있는 국가의 자리로, 의상이나 저런 공간의 이미지나 이런 게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역대 대통령도……

○**윤종군 위원**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모든 선물을 공식 석상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비공식적으로 건네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 것이고……

○**윤종군 위원** 그래서 저것도 대통령기록물로 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사진이 무슨 선물을 받는데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종군 위원** 안 보여지세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종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게 무슨 영부인의 품격하고 관계가 되는 사진입니까?

○**윤종군 위원** 아니, 여사의 품격을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윤종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군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질문할 테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기자 출신이신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여기서 취조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종군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실장님, 따로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윤종군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실장님.

○**위원장 박찬대** 실장님, 따로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기자 출신이신데요, 여기가 해외언론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20초 이상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 장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받는 장면이라고 외신기자들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충분히 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아니, 위원님이 너무 침소봉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윤종군 위원** 어떤 걸 침소봉대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사진은 대통령님의 관저로 이사하기 전에 사저로 추정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군 위원** 이미 1월 달에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사진이 무슨 품격을 잃은 사진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군 위원** 고위관계자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여러 언론 기사에 보도가 떴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의 지적과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침소봉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저 장면을 대통령기록물을 주고받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인정을 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시고요. 대통령기록물인지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후에 하는 것이고……

○**윤종군 위원** 대통령실에서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1월 달에 그런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박찬대** 두 분, 말씀 정리해 주세요.

○**윤종군 위원** 자기들끼리도 말을 안 맞추고 시간도 잘못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무슨 할 말이 많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의 주장은 너무 견강부회식이고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주질의 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을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김진표 의장의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표 의장에게도 사실은 확인 전화를 몇 차례 걸었어요. 그런데 응하지는 않으셨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하여 김 전 의장은 사실상 어떤 사과를 담은 유감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 6월 28일 날……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자신의 회고록에 나온 표현 자체가 논란을 일으켜서……

○이소영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잠깐만요. 1초만, 30초만.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이소영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3분밖에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실장님의 안 읽으신 단락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만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대변인실은 왜곡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왜곡인지, 그 독대에서 대통령께서 실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설명이 없어서 사건의 실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이 폐북 글, 이것이 다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소영 위원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이소영 위원 대통령께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 답변 들으십시오.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제 질문부터 먼저 들어 주세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김진표 의장과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멈춰 주시고 제지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김진표 의장의 독대 요청에 의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

루어졌습니다.

○**이소영 위원**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제가 질문을 아직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답변하라면서요.

○**위원장 박찬대** 따로 하실 말씀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답변을 제가 성의껏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 대부분이 비서실장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는데요. 저는 추가 1분보다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이소영 위원**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실장님, 답답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것 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우리 위원님들 제가 존중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오늘 오전에 홍보수석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모든 언론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독대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도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참모들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직접 듣지는 못하셨나 보네요.

이게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전직 국회의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회고록 내용은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두 분께서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어떤 언사를 나누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으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고.....

○**위원장 박찬대** 2분 더 주세요. 2분만 더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아니, 뭘 2분을 더 줘요.

○**김정재 위원** 아니, 뭐를 근거로, 무슨 근거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도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차별해서 지금 질의시간을……

○임이자 위원 이제 차별까지 하시냐고.

○위원장 박찬대 아니, 대부분의 말씀을 실장님……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해 보자고 하는 것도 고심의 하나일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찬대 더 달라 그러면 더 드릴게요.

○김정재 위원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소영 위원 어쨌든 전직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대통령이 조작이나 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고록 내용 공개된 게 27일인데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20만 명 정도 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그 이후에 폭증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까지, 수많은 회의를 참석했지만 이런 회의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세상에 무슨 이런 회의가 있을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주고 말이야! 룰도 없어!

○이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80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접속대기 인원이 2만 명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국회 청원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가까이하신다는 것은 이미 초반부터 사실 많이 지적된 얘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된 바 있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 모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가 문제 되니까 사직을 했었고요. 극우 유튜버 강 모 씨 대통령실 채용 또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동아일보에서 조차 사설로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부인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뭐를요?

○이소영 위원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조차 극우로 분류하는 곳의 그런 얘깃들은 걸러서 들으시고 특히 그런 내용을 외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된다, 그렇게 간곡히 청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비서실장님 확신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주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이 회의 진행 때문에 계속 과행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오후에……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면 될까요?

○배현진 위원 아니, 2분이고 1분이고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 말씀 간단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똑같은 문제로, 얘기를 계속 번복해서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소리 높이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7분, 3분 이렇게 정했으면 적어도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질문하시다가 시간 모자란 것 1분씩 주시는 것 저희 다 양해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합당한 룰에 의해서 2분을 더 주시든 그걸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하셨어야 고무줄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저희 과행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시간도……

○위원장 박찬대 아까 이소영 위원님에서 추가적으로 1분 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것에 동의를 했고요.

○배현진 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저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추가질의, 보충질의할 때 시간을 뺀다든가 하는 뭔가 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대 제가 정상 참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서로 말이 섞여서……

○배현진 위원 아니요, 제가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요구하지 않는……

○배현진 위원 그러나 그 룰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안보실 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계속해서 이 휴대전화로 많은 국민들이 경보를 받는 게 오물풍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물풍선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재산 손실도 크게 일으키고 있고 이게 위험지대에 떨어지면서 많은 공포심을 자아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님께서 ‘그것을 왜 상공에서 격추하지 않았느냐,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격추했으면 될 것을. 이것은 안보 실패이고 경호 실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떠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시키지 않는 것은, 우선 사실상은 지금 그 오물풍선 안에 위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더러운 물건은 좀 들어

있다가 우리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요즘은 종이만 잘라 가지고 집어넣는데 어쨌든 혹시 모르는 상황 때문에, 풍선을 격추했을 경우에 공중에서 살포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공중에……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낙하된 다음에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물풍선을 함부로 격추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군사분계선 위에서 격추하지 않는 이유는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가 될 수 있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잘못되면 낙탄이 저쪽에, 북쪽에 떨어지면 의도치 않은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심하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 이것을 무려 군에서 4성 장군 출신인 의원님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군 출신 의원님들이 이것을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물풍선을 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그리고 상공에서 날아올 때 그것을 보지 못함이 아니고 왜 미리 격추하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풍선이 부양될 때는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간 몇 개 떴다까지 저한테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2개 떴다, 5개 떴다, 20개 떴다 이런 식으로.

○**배현진 위원** 다 확인하고 있으시지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도 대개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공에서 격추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안에 어떤 위해물질이 들어 있을 때 그것이 퍼져 나가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낙하시켜서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현진 위원** 접경지역의 가축들에게 유해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생화학무기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사실은 생화학, 그런 어떤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은 거의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주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저희가 여당의 많은 위원님들, 야당의 위원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께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호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배현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1분 드리면 될까요?

○노종면 위원 예.

질의응답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위원장 박찬대 이쪽, 저를 보고 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잡음들이 국민들께 좀 불편함을 끼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금 나와 계신 참석자분들도 이 자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말씀 하러 나오신 건 아닌 거지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잘게 쪼개서 나름대로 질의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리고 간단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배경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 듣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건 다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질의하는 사람의 의도와 반한 그런 긴 답변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5분, 7분, 혼자 답변으로 다 소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제지가 안 되면 그 시간은 조금 전처럼 보장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가 이해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은, 이 자리는 묻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얘기만 다 물어보고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듣고 본인 얘기만 다 할 거면 저분들 뭐 하러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본인 얘기만 다 쏟아 놓고 당신 얘기는 전혀 안 듣겠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색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상임위라는 자리지만 통상적인,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보면 적어도 물어본 것은 답변을 듣는다는 자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위원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3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1분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제한이 있는데 앞에 계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인권위원회 분들은 사실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진행이 크게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제한된 시간을 다 쓰고 나면 그 이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질의 중에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질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윤리에 대해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이신 대통령께서는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가족이 선물을 들고 오는 국민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은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가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원칙대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인식이 대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보훈부장관 등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한 청탁 내용으로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조 행정관은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통일TV 송출 재개 건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 행정관은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또다시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국립묘지 안장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국가보훈처 사무관의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이 됩니다. 영부인은 최 목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었고 대통령실 직원에게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장님, 명백하게 알선수재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 판단은 수사 당국에서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광현 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임광현 위원**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처럼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서 법을 피해 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117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은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명품백 외에 다수의 선물에 대한 금품 수수라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또 그에 따른 대가로 공무원인 행정부에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비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 핸드백 사건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 아무개 목사가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안다라고 접근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취·촬영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여사님

의 처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금년 말까지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그 판단이 미루어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대통령 배우자와 일반 공직자 배우자가 선물을 받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박절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선물을 놓고 간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여사님은 이 선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야말로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일탈이라는 한 방향으로 막 몰고 가게 되면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광현 위원** 실장님, 영부인을 비호하시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논리가 너무 빙약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여론 자체가 너무 작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위원님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물론 아까 경호처에서도 반성을 했습니다만 돌아가신 아버님의 지인이라고 미국에서 온 목사 아무개라고 하니까 안 만나 줄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갔는데, 이 작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도촬 기구를 가지고 와 가지고 녹취·촬영하고 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을 벌여 가지고……

○**임광현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인품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민들의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공작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대** 실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김 여사가 거절하지 않고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왜 본질을 호도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임광현 위원** 이게 사과로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적 문제는 현재 수사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사과하면 죄가 면책이 됩니까?

○**위원장 박찬대** 두 분,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실장님, 배우자가 금품 받았는데 사과하면 다 면책이 됩니까? 아니,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부분은, 대통령님 배우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의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위원님도 저도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시고 실장님도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문 때 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이 건에 대한 본질을 왜 제공한 사람에 대한 경력과 인품을 가지고서 호도를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문 때 해 주세요.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여사님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부인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셨지요? 김정숙 여사께서는 의혹으로 점철된 외유성 해외순방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인도뿐만 아니고 노르웨이, 체코, 아주……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 멋있게 찍었습니다. 우리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소년을 안고 심장병 수술을 지원해 줬고 지금 상당히 건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품격 있는 외교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정숙 여사님의 샤넬 재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 좀 해 보시라고요. 프랑스 순방 때 2018년 10월 달에 샤넬 재킷을 대여해서 입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샤넬에 돌려줬고 그리고 샤넬은 그것을 국립한글박물관에다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요, 이것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샤넬에서 다시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재킷을 제작해서 기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샤넬 재킷, 김정숙 여사님께서 입었던 이 샤넬 재킷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비용은 무엇으로 냈을까?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지요?

여러분들, 똑같다는 말이에요. 2018년 7월 달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품위유지비 및 의전비 정보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요? 소송 제기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는? 청와대가 김정숙 의전 관련된 비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했는데 여기서 청와대가 항소했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15년 동안 비공개되기 때문에 묻혔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샤넬 재킷이 도대체 얼마짜리 입니까? 수천만 원 가는 옷이라고 그럽니다. 이 옷은 어디에 있고, 이것 지금 계속 추적

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검찰에서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관련돼서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곧 밝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세요.

○임이자 위원 과연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봤을 때 누가 품격 있는 외교이고 과연 누가 더 외교를 잘하는지 보십시오.

샤넬 재킷 가지고, 여러 가지 외유성 해외순방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여사님은 보스턴 사리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했고, 결국 해 왔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외교가 훨씬 더 품격 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비서실장님, 샤넬 재킷 관련돼 가지고 뭐 아는 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바, 들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샤넬 재킷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으세요?

이것 제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채 해병 순직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질의에서 깡통폰은 과거의 정보를 모두 없앤 새 핸드폰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등 주요 혐의자 모두는 공수처에 모두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며 수사방해입니다.

실장님, 주요 혐의자가 이렇게 깡통폰을 수사 당국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깡통폰은 쓰면 안 되겠지요.

○정을호 위원 아무 자료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을호 위원 이렇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하는 정권의 거짓말과 외압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기록 보존기간도 7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성역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국민 63%가 찬성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특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요.

○정을호 위원 홈페이지 차료 좀 띄워 주세요.

홈페이지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분노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국민들께서 권익위에 올린 질문 몇 개를 좀 뽑아 봤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구청 사모님께 명품백 드려도 되나요. 혼직 교사인데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300만 원 선물 수령해도 될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옛 300만 원 선물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국민 권익위가 답변했습니다, 300만 원 옛 줘도 된다고요.

실장님, 이렇게 민심이 뿔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런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을호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다음 화면도 계속 보여 주시지요.

앞에서 봤듯이 뒤로는 명품백 받아 놓고 앞에서는 에코백으로 국민들 열받게 하는 김건희 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에코백 들고 다니니 이제 저 수사 종결시켜 주세요’라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명품백은 포장째로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드리세요.

○정을호 위원 혹시나 해서 수차례 뇌물을 건넸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함정이네 뭐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말씀은 근거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규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이것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성태윤 실장님, 뛰어난 학자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경제 지금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1분기 회복세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평가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 일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수출도 그렇게 썩, 반도체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최근에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너무 짧아서 두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요? 암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뇌진탕 이런 게 있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식과 너무나 벗어난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법도 피하고 양심도 없는 비정하고 무도한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 국민은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이미지를……

○**정진욱 위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정성국……

○**정진욱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에 답변하지 마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장상윤 사회수석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조직을 보면 사회수석님 밑에 비서관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보면 예를 들어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비서관이 세 분이 계세요,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

제가 볼 때는 교육개혁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정성국 위원**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자율화부터 시작해서 저출생 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될 이 일을 교육비서관 한 명으로 이 일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좀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부하고 또 교육감, 각 대학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국 위원** 실장님,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교육비서관 두 명 두면 안 됩니까? 대학을 총괄하는, 대학과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비서관하고 유·초·중등을 관할하는 교육비서관의 전문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거의 관련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비서관님이 계셔야 교육부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비서관 한 분이 해결하는 부분은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전문성 영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물론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실이라는 데의 업무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국 위원** 저는 수석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된다고 하니까 좀……

지금 여기 교육 다양성을 보면 ‘교권 5법 개정’ 돼 있는데 교권 5법은 이미 개정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개정이 됐습니다.

○ **정성국 위원** 됐는데, 교권 5법 개정인데 개정됐고 남아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 **정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다만 아동복지법이, 교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법무부나 복지부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정성국 위원**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응도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장상윤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교사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교사를 아동복지법 대상, 아동학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신데요 또 아동복지법의 취지상으로 볼 때는 조금은 법리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완전히 제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교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성국 위원** 그것은 더 고민하기로 하고요.

6페이지를 보면—지금 업무현황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주 적의한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총리급으로…… 실장님, 부총리급 맞지요?

○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예, 맞습니다. 부총리급으로 추진합니다.

○**정성국 위원** 여기 보면 양립, 양육, 주거라고 돼 있는데 양립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기획부를 설립하고요 일·가정 양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 용어를 3개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전략 기획부인데 양립은 제가 의미가 되는데 양육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저출생 대응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양육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인구전략부가 신설되기 전에 양립, 양육, 주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3개 용어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경제기획원처럼 전체적인 인구전략에 대한 기획 그리고 평가 그다음에 전략 수립을 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부총리를 과거에는 교육부장관께서 하셨는데 인구부장관께서 사회부총리를 맡으셔서 전체적인 전략과 사업들을 통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집행부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경제기획원이 있을 때에도 경제 관련된 집행부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각각의 사회부처들이 역할을 하되 그 전체적인 전략을 인구전략에 총괄하는 형태로 꾸려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추미애 위원** 비서실장님은 법률비서관이 현재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전 법률비서관이 여당 위원님으로 이 자리에서 법적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그것이 다분히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이고 법조문에 위반된 것이어서 제가 비서실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추미애 위원** 그것 틀립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법 개정된 것 228조제1항을 보시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권이 있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요. 다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할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이지요. 그럴 때는 이첩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있는 것이고 수사하다가 해당 범죄를 인지해서 정확하게 이첩한 것이고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조사다, 대통령이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개입이 아닌 조사 개입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 다 궤변입니다. 제대로 아시기 바라고요.

전문성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가 엉터리가 아니고 정확했다라는 것은 어디서 더 확인이 되느냐 하면 8월 9일 국방부장관이 직접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재검토 최초 보고서 결과가 8월 14일 나왔는데요. 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추미애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박정훈 대령의 판단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이 사건 사고가? 갑자기 대통령이 경북 예천을 예방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겠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통령이 동유럽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호화 명품 쇼핑을 했다는 뉴스가 교포의 제보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SNS에 전파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갑자기 경북 예천을 방문을 한다는 소식에 임성근 사단장이 수해 복구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달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주장이 아니고 앞에 법률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제가 법률가로서 법에 의거해서 알려 드렸으니까 다시 회의 주재해 보시고 대통령을 똑바로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면, 추 위원님이 훌륭한 법률가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이 상급자, 하급자를 망라한 8명을 모두 피의 사실을 적시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지적이……

○**추미애 위원** 그걸 하지 말라고,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고 군사법원법이 생긴 겁니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불법을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정훈……

○**추미애 위원** 불법을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 정황적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중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이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뭣등으로도 안 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판단과 조사가 과도했다라는 국방부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국방부 재조사에서 확인된 걸 알려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비공개 서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대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내용들을 쭉 저희가 들어 보면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라는 내용들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채 해병 특검을 안 받을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무적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미 찬성하고 계시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그런 민의를 이미 표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거리낄 게 없다면 왜 적극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지가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던 중에 채 상병 특검법 중에 특검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 원론적인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제삼자를 특검 추천권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의 민주당 안을 감안해서 대한변협을 추천권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1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이나 중재안에 동참을 해서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의 중재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께 그 수용을 제안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특검의 명분도 서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성안해 온 특검법안은 그런 공정성 면에서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과 여당의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불공정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은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이런 원론적인 채 해병 특검 찬성이나 아니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을 좀 뛰랄까요, 단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읽힙니다.

혹시 한동훈 후보가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없습니다.

○ 천하람 위원 혹시 대통령께서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 천하람 위원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본인의 양심과 헌법적인 소신에 따라서 채 해병 특검법의 중재안이나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마운데요. 적어도 수사권이…… 법률가시니까, 수사는 행정권에 속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 즉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저는 그 관점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한 대화와 노력에 더 성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천하람 위원 기존에 여당이나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특검 추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유정 위원 정진석 비서실장님.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 강유정 위원 대통령이 구독 중인 매체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포함해서 외신 목록까지 말하는 건데요. 일일이 말하시기 어려우면 몇 종 구독 중이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홍보수석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 강유정 위원 예, 홍보수석 이도운 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이도운 비서관님, 방금 질문 들으셨지요?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수석입니다.

○ 강유정 위원 몇 종 구독 중입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필요한 정보는 다 습득하고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몇 종 구독 중입니까? 몇 종 구독 중인지 지금 말씀 못 하시겠으면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 목록 몇 개입니까?

○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강유정 위원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이 이제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언론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 목록을 공개하고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실에서 쓴 바로 ‘알려 드립니다’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도 못 하고 말씀을 못 하시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 목록과 구독 중인 매체, 지면 언론 전부, 외신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용원 위원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나와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나왔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원래 PPT를 준비했는데 띄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PPT에 '저는 모욕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말도 안 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한 말인데요.

조금 전에 신장식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막말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막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대답만 주세요. 막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의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전부 묵살하고 그 말만, 그 단어만 빼어내어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아니, 막말한 적 없다라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망발'이라는 말 했습니다. 망발 뜻이 뭐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이치에 끊지 않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틀렸습니다.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1949년생인 송두환 위원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망령이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이 1949년생인 송두환 위원장에게 망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명백한 모욕 발언이나 비하 발언이 아닙니까? 막말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공직자는 나이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저는 그것 묻지 않았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그것 묻지 않았습니다. 망발이 막말 아니냐고 했는데, 막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셨네요. 지금 망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막말을 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송두환 위원장께서……

○**강유정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곧 상임위원장 자리가…… 논의한 적 없지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데요. 상임위원장에 나올 의사가 있습니까? 상임위원장이 될 의사가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장은 아니고 아마도 인권위원장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인권위원장 하시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지금도 막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몇 번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고 이런 인권 감수성과 언어 감수성으로 무슨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약간의 의사라도 표현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충분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안보가 위중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권은 굉장히 잘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명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수사야말로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수사가 조금이라도 오버하거나 군 수사가 적법절차를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해는 국민들 누군가의 귀한 자식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본인 스스로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국심과 공명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과 적법절차를 어기면 아무리 본인이 선의를 갖더라도 국가의 폭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뛰어들어서 병사들을 구해 낸 중사까지 입건을 했던 유사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병장이나 상병, 우리 병사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막 입건한다면 그 사람들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것은 국민들, 군대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권한 없는데 압수수색하면 불법 수사 되는 것이지요. 입건할 권리가 없는데 입건하면 입건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제일 문제 삼는 것은 열흘 만에 어떻게 그렇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를 신뢰받아서…… 거기에 입건된 사람들은 바로 또 경찰 수사에 강제로 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보실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몇 명을 과연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대규모 사건이 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몇만 페이지, 좀 더 큰 사건일 경우에는 몇십만 페이지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과연 열흘 동안 그 수사관들, 군 수사관들이라고 해 봤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다뤄 본 경험이 적을 텐데 그런 분들이 수사를 해서 열흘 만에 어떻게 결론을 다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게 이때까지 군에서 제가 알기로 열흘 조사해서 8명

을 입건해서 보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봤을 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서 군 수사 매뉴얼 만들고 항명할 수 없는 체제 만들고 군 수사권 남용됐을 때 결국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도 하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예,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더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 국회도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저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저희가 수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다릅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이 있을 뿐이지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공수처장을 결정하고요. 모든 것을 독립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위원들께서 다 띄워 놓은 통화 목록, 저도 20년 가까이 수사해 본 사람이지만 저렇게 통화내역을 통째로 언론에 시간, 일시, 번호까지 하는 경우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직업적인 검사나 경찰관의 경우 저것 했을 경우 업무상 기밀 유출 이런 걸로 본인이 감옥 갈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데요.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몇 년 동안 인연이 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와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운영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찰 인연으로 한 20년 이상 됐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던 데.

대통령비서실장님,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측근들이고 핵심 권력에 포진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그렇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복무규 인사비서관. 맞습니까? 검찰 라인들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복무규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은 지금 퇴진……

○**박성준 위원** 퇴진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대통령 격노설 있는 날, 7월 31일 날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해서 한

여섯 번 통화를 하거든요.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부속실장이 전화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뜻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부속실장이 이렇게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연락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부속실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무슨 업무가 있다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게 어떤 업무이고 무슨 심부름을 하고 그 업무분장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성준 위원** 부속실장이 무슨 뭐…… 대통령 보좌하는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비서실은 전부 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태도가 상당히 건전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PPT 자료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비서실장님, 여기 집중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전화를 하고 8월 2일 날,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날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 이종섭 장관과 첫 통화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등장을 해요.

PPT 띄워 줘 보세요.

8월 2일 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합니다. 뭐 임기훈, 신범철, 유재은,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님,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집중 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부의 공직기강 전체를……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박성준 위원** 고위공직자 복무 종합점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으로 볼 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박성준 위원** 그러면 여기 신범철, 임기훈, 유재은 공직기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날? 업무 파악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저는 뭐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준 위원** 전화한 이유에 대해……

1분만 더 주세요.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 기밀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하나하나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설명…… 아까 강의구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를 문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달라 그래서 했더니 국방혁신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박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혁신회의를 하는데 여섯 번이나 통화하는가 보지요?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보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 회수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라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하는 순간 전화받는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날이 복무점검을 하는 날이었어요, 8월 2일 날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공직기강비서관…… 제 추론입니다마는 이게 항명 사건이 발생하니까 아마 공직기강비서관도 항명 사건의 범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준 위원** 추측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말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하는 날이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의구 부속실장이 여섯 번 통화했다고 하면 무슨 행사 때문에 여섯 번을 통화하는 경우가 있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31일 날 강의구 부속실장의 이 행태와 공직기강비서관의 행태, 검찰 라인이 총동원돼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서실장님의 합리적 추론은 저의 합리적 추론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마지막 순서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배준영 위원** 대한민국헌법 53조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배준영 위원** 재의요구권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삼권분립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한다고 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더라고요. 다수당이 많이 통과하는데 거부권을 굳이 많이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의 요구권 행사가 더 상대적으로 많다는 측면……

○**배준영 위원** 재미있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윤석열 정부 발의 법률안건 중 본회의 통과된 게 40.1%인데요. 문재인 정부 발의 법률안 중 본회의 통과된 것은 63.7%나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 것은 되게 많이 통과시켜 주고요. 우리가 야당일 때는 통과……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일 때는 통과 안 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임대차 3법 아시지요? 임대차 3법이 사실 전세대란 일으키고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켜서 수천억의 국고를 낭비시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 국토위, 다 같은 당이었을 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가고 국회의장이 민주당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국토위도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같이 나라를 망치는 법이 국토위, 법사위, 국회의장 그렇게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질 것 아닙니까?

꼭 똑같은 법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횟수가 잣은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정무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모두에 설명해 주신 대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작동케 하는 기제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합당하게 온당하게 행사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현황 대통령비서실에서 한 것을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사회수석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국민 85.6%가 ‘의료계 집단행동 멈추고 국민 곁으로 돌아가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저희가 의료개혁하면서 의대 증원 조치가 있은 후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대생하고 집단행동을 한 지 지금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협하고 대화를 하면서 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을 내고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어서 추가질의가 있을 텐데 추가질의 준비하신 분들 혹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질의……

○**추경호 위원** 조율 좀 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좀 줄여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추경호 위원** 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대로 조율할 테니까.

○**배준영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조율할 테니까 줄여서 하시지요.

○**박성준 위원**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세 번까지 다 합의하신 것 아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7, 3하고 추가질의는 받기로 했고.

○**배준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명수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 분 나가셔서 통상 다 협의해 가지고 오실 것을 자리에서 하고……

○**위원장 박찬대**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데요.

○**김정재 위원** 정회 5분만 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추경호 위원** 한 5분만 했다가, 우선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21시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식사를 하시고?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래도 오늘 첫 운영 회의다 보니까.

○**추경호 위원** 시간이 너무 뜨는데, 조금 더 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일들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고민정 위원** 어차피 지금 시간이 대통령실 가실 것 같지 않은데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예, 의사진행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저 30초만 할게요, 1분밖에 안 주시니까 어차피.

7분, 3분으로 합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질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5분만 정회를 하시고 두 양당 간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좀……

저희가 국회에서 통상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 이외에 추가할 때는 서로 당에서 협조를 해서 줄일 만큼 줄이고, 오늘 첫 번째 한다고 해서 굳이 12시까지 붙잡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합의한 사항은 좀 지켜 주시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어떻게 할 건지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들 간에 협의를 거쳤는데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2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는 추가 1분 없이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분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답변 주시는 분들도 운영위원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답변이 있다면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정진석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고민정 위원 벼룩없이 굴지 마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고민정 위원 깜짝 놀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안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정 위원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지금 실장님 뒤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고개가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웃음)

○고민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용원 인권위원께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굳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전에 기자 생활도 하셨는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해도 됩니까? 기자 후배들도 많으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정 위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만 잘라서 들으면 불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게 상식적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통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

물며 인권위입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하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서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나만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인 인권기구 감시하는 ANNI라는 기관에서 대통령님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 접수가 됐습니까?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앤비라는 단체요?

○**고민정 위원** ANNI, 에이 엔 엔 아이.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아직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 그러셨어요?

21일이었거든요. 아시아국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비정부기구이고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 ANNI라고 합니다, 에이 엔 엔 아이.

21일 날 공개서한을 대통령님께 보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접수가 됐을 텐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을 보면 중간에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묵혀 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알아보시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익위에서 명품백 관련해서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국회의원들 배우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다 받아도 됩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권익위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우리는 그 권익위의 판단을 보면서 행동을 하니까요. 저희가 받아도 되느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권익위의 판단이 표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익위 구성원들 중에는 야당 추천 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아니요, 표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도 되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어떤 맥락인지를 알아야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 위원님도 준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광상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경호처 차장 김성훈 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경호처 차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곽상언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수방사 등 관련 기관을 통제하기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련 기관을 통제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지시하는 법률적 근거가 뭔지 아시는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호처의 통제·협조 지시를 받는 관련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유관기관별 경호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경호처에 경호업무 협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곽상언 위원 그래서 경호처는 이 규정들에 따라서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적법한 문서를 모두 작성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경호활동을 펼치고 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곽상언 위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위해 사건과 같은 경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지요? 맞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곽상언 위원 대한민국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이렇게 경호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생각하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법령에 규정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대통령실이 2022년 3월 20일에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을 종로구의 청와대에서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6조 1항을 보면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곽상언 위원 경호처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합니다.

○곽상언 위원 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최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개최했겠네요? 2022년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곽상언 위원 개최한 적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기억이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회의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최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는.....

○곽상언 위원 지금 법령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지난 정부의 기간입니다.

○곽상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이전 TF를 구성해서 이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TF 관련해서 유관기관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호업무지침 만들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분과를 두고요. 청와대 이전 TF 분과를 갖고서 움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지난 정부 말에 이루어졌던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하고는 약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곽상언 위원 일단 제 질문사항은 뭐냐면 대통령실 이전 TF와 관련해서 경호업무지침을 따로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들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경호구역, 경호 특정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호업무지침, 경무지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곽상언 위원 만들었을 거라 봤으면 그것 제출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경호처 차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년 전, 22년 6월 18일 평창동 행사,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행사 기억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노종면 위원 얼마 전에 그 현장 점검을 하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비공식 행사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비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영부인님께서 가시겠다, 사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몇 시간에서 몇십 분까지도 그렇게 즉각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김건희 여사의 첫 번째 민간 행사였는데 30분 전에 가서 현장 점검을 했을 수도 있다?

잘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깜짝 방문 하실 때는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공식 행사나 오픈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전에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기록물을 받는 장면, 이다음 장면 보세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김건희 여사의 품격을 말씀하셔서,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품격이 있다 없다, 예의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노종면 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손님, 방문한 면담자 앞에서,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가래침을 뱉고 또 그것을 휴지에 받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손님 앞에다가 쌓아 뒀다면 그건 품격 있는 행동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노종면 위원** 예, 충격적인 영상일 것 같아서 제가 공개는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 품격 품격 하셔 갖고.

다음 PPT 띄워 주세요.

비서실장님 앞선 답변의 오류를 하나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대통령실 통화가 채 상병 사건하고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6월 21일 법사위에서 유재은 관리관이 직접 한 말이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 인사가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도 대통령과 사건 회수 관련해서 통화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 불법적인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서실장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정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있는 인사에, 불법적이고 비열한 공작에 대통령 취임식이 뚫리고 만찬장이 뚫리고 또 대통령 배우자의 면담 장소가 뚫렸습니다. 책임 관계 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이도운 홍보수석님.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예.

○박수현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정진석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비록 좀 날 선 분위기 속에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도운 홍보수석님을 특별히 모신 것은 저하고 똑같이 대통령비서실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저희 때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런 같은 경력을 경험을 하고 계셔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동업자적 위치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방향 광고의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부족했습니다만 홍보수석께서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일방향으로 광고하는 입장보다는 언론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피드백을 해서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중심에 홍보수석께서 서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홍보수석은 진실과 오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까를 숙명적으로 달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지적이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에 기인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끝까지, 오해가 사라질 때까지 또 진실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신 것 같길래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따뜻하고 우정 있는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 중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이나 그 다음에 인도 방문과 관련한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문체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샤넬 재킷과 관련해서도 제가 국민소통수석 시절에 그 샤넬 재킷이 청와대 관저의 옷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돌아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런데 오늘도 또 오해가 다 가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 프랑스 순방 계기에 김정숙 여사께서 행사의 취지에 맞도록 주최 측 요청에 따라서 한글 샤넬 재킷을 착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매뉴얼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그래서 그 재킷은 샤넬 측에 반납을 했고 그 뒤에 샤넬 측에서 기증 의사를

밝혀 오셔서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여러 차례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샤텔 측에서 수석디자이너가 선의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협의를 한 끝에 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해 주시면 기증자의 선의도 저희가 잘 받는, 결례가 없이 받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개인적 기증을 받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한글박물관에 기증하도록 협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시고 또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실장님,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고맙습니다.

○**부승찬 위원**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31일 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녹취·녹음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녹음하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녹음 안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녹취록은, 회의록이나 녹취록 같은 것은 작성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전혀 안 합니까? 회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아는 한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녹음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부승찬 위원** 김태호 1차장님, 녹음한 적이 없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수석보좌관회의는 녹음 안 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안 합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 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직과 전직 대통령이 서로 합의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합의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한 거예요? 법은 왜 만들어지고 법은 왜 지키는 겁니까?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국방부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군사 시설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지요,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법으로 촘촘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간의……

○**부승찬 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치. 북한에서나 쓰는 인치, 인간에 의한 국정운영.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과정에서……

○**부승찬 위원** 아니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률적인 미비가 어느 대목에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승찬 위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와대 이전 TF는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청와대 이전 TF요?

○**부승찬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인수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22년 3월 23일 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소속이 아니라고 브리핑을 하거든요.

이건 뭐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승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저는 5분 주세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용원 위원님과 이충상 위원님 같이 좀 나와 주세요.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말 좀 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나왔습니다.

○**서미화 위원** 나오셨어요?

김용원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답변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다’라고 하셨는데요. 인권에 좌파나 우파가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인권 우파이십니까? ‘예, 아니요’로 해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우파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은 좌파와 우파가……

○**서미화 위원** 인권 우파냐고 물었어요. 설명하시지 말고요.

좌파 해방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은 인권 우파예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거두절미하고 ‘예, 아니요’로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좌파와 우파가 서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미화 위원** 인권이 우파와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용원 위원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본인 수준을 딱 보여 주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은 좌파와 우파가……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님, 질문 안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미화 위원** 김용원 위원님, 본인이 본인 수준을 말해 준 거고요. 다시 한번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명분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 아시고 들어가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권은……

○**서미화 위원** 이충상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서미화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충상 위원님, 지난주이지요. 11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정족수, 안건 처리 연기를 이유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님과 함께 인권위 모든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상임위원이 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없지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미화 위원** 보이콧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상임위원이, 상근하시는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서미화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따 나중에, 끝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충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법적 근거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미화 위원** 과연 어떤 나라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처음부터 숫자로 의결을 합니까?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미 박 대령 인권침해 사건 기각에서도 보여 줬지만 김용원 위원의 독단적 해석으로 안건이 무더기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이것이 약자들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한 방에 그냥 탁 숫자로, 다수결로 그냥 처리해 버리고 더 이상 심의하지 않는 게 약자들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판사 3명 중 2명이 무죄 의견이고……

○**서미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1명이 유죄 의견인 경우에……

○**서미화 위원** 이충상 위원님, 시간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무죄판결 선고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처럼 적법합니다.

○**서미화 위원** 이충상 위원님, 관례에 없는 일…… 그건 재판부에서 그런다고 하시고 여기는 재판부가 아니에요. 인권위입니다. 저도 인권위원이었어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해 받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예, 정말입니다.

○**서미화 위원** 어디서 천동설, 지동설을 갖다 붙이세요? 본인이 코페르니쿠스라도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아니, 정말입니다. 저의 해석이 아주 정당합니다.

○**서미화 위원** 자, 정도껏 하시고 떼 그만 쓰시고요. 상임위원이면 회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진석 실장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비서실장입니다.

○**서미화 위원** 비서실장님,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기조가 약자복지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서미화 위원** 인권위 구제를 위해서 찾아온 군 사망자 유가족을 수사 의뢰하는 사람이 약자복지 인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전반적인 내용을 좀 훑어본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서미화 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이런 위원들이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위원이 아까 말한, 본인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되는 일 없도록 꼭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 주실 거예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공직 인선은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또 국민 눈높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국정기조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 번도 답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이충상 위원님, 1분 안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김용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1분 안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국회 상임위에서도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1명이면 부결이지 가결도 부결도 아닌 채로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3명 중 2명이 무죄 의견이고 1명이 유죄 의견이면 무죄판결 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적법하고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용원 위원님과 제가 인권위원 3명 중 2명이 진정 기각 의견인 경우에 한해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아주 적법하고 정당한 기각이지 민주당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방적 기각, 직권남용이 결코 아닙니다.

인권위가 발족한 이래 위 조항을 피상적으로 잘못 해석해 온 것을 김용원 위원님과 제가 바로잡은 것이고, 정말 양심적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17세기에 지동설을 증명한 갈릴레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김용원 위원님과 제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저는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1분 30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이건 답변받을 일 아닙니다. 저 질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재판부도 아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인간의 천부인권은……

○**위원장 박찬대** 1분만 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발언 방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천부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양대 축으로 합니다. 그런데 좌파는 평등권에 무게를 두고 우파는 자유권에 무게를 둡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상호 모순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미화 위원** 본인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물었어요. 그것 설명하라고 안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인권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서미화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가르치고 그러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알고 계시면서 왜 인권에는 좌가 없고 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서미화 위원** 아니, 수준이……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인권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까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좌파 우파만 물었으니까요 그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비난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만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러나 회의에 여러……

○**박성준 위원**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김용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신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의사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님 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무더기 기각을 했다고요?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막 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서미화 위원** 그리고 좌파 해방구, 오히려 사과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용원 상임위원님,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말씀하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이것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만하세요.

○**서미화 위원** 질문도 안 한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30초면 충분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무더기……

○**위원장 박찬대** 그만하세요.

○**윤건영 위원** 아니, 국회랑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무더기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김용원 위원님, 국회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1분을 드렸잖아요. 1분 하셨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아니, 답변드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서미화 위원** 정진석 실장님, 똑바로 좀 저분을 봐 주세요. 인권위원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김용원** 무더기 기각했다는 안건 중에 37건은……

○**위원장 박찬대**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비서실장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비서실장입니다.

○**신장식 위원** 한 보수단체가 디올백 건넸던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 혐의에 동의하시나요, 주거침입과 스토킹?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PPT 하나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주거침입이라는 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방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경호차장님, 이 당시 경호처의 안내를 받고 최재영 씨가 경비대상구역에 들어갔지요, 경호대상구역에?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안내를 받은지는 확인이 지금……

○**신장식 위원** 그러면 통과시킨 것은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재영 목사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코바나컨텐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호처 안내받고 들어가신 것 맞잖아요, 다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주거침입의 보호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에요. 저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로 보이세요?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주거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대상구역이라고 했지요, 코바나컨텐츠가?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뚫린 거지요. 뚫린 것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게 생각……

○**신장식 위원** 주거침입을 했다면.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뭐니까? 주거침입인데 뚫린 것은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호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식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거침입인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방문객이나 접견자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신장식 위원** 잠시만요, 차장님.

차장님, 주거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거예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주거침입이라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해를 위해서 침입할 수도……

○**신장식 위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 계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장식 위원** 누가 경질됐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신장식 위원** 경호처 차장, 경호차장은 승진하셨는데 누가 교체된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현장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신장식 위원** 현장 경호 라인만 교체됐다? 어느 분이 경질됐는지 그리고 경질의 사유가 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무슨 사유로 경질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경질이 아니고요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까 경질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교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왜 교체됐는지 교체 사유를 알려 주세요.

주거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것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주거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경호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경호대상자의 심기든 뭐든, 주거침입이 꼭 물리적인 가해만 있어야 되는 게 주거침입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찬대**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조금 전에 비서실장님하고 안보실 차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7월 31일 수보회의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회의는 모두 속기를.....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속기록은 있습니다, 녹음은 없고.

○**윤건영 위원** 잠시 제 말 들어 보세요.

녹음이, 녹취가 없다고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녹취가, 예.

○**윤건영 위원** 속기를 하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회의록 작성은 있는 걸로.....

○**윤건영 위원** 아니,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속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의 기록은. 우리 국회가 속기를 하듯이 대통령의 기록은 속기를 해야 된다고요. 속기를 하면 녹취가 당연히 있어요. 지금 국회도 다 녹취하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것.

왜 국회에 와서.....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회의록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회의록이 아니라 그게 녹취, 속기라니까요. 대통령비서실에 속기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속기하실 때 녹음기 틀고 같이 하시잖아요. 왜 있는 것을 없다 그래요?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 녹취도 있고 속기도 있고 회의록도 있어요. 그것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국회에 와서 두 분이나 같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거짓말한 적이 없고요.

○**윤건영 위원** 그러면 방금 뭐니까, 실수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 윤건영 위원 그러면 잘못 아신 거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잘못 아신 거예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잘못 아신 거라고요.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거짓말쟁이로 치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니면 잘 모르고 오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 뭐 제가 아는 바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 윤건영 위원 PPT 띄워 보시면,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생산현황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즉 뭐냐고 하면 선물의 숫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법 10조 1항과 시행령 4조 1항에는 '매년 31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런데……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별칙이 있습니까?

○ 윤건영 위원 별칙 조항은 없어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별칙 조항이 없지요.

○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별칙 조항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고 현행법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에 선물을 126개를 받았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6개 안에는 디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어긴 거지요. 물론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현행법을 어긴 게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나 그 디올백의 경우에는……

○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하실 말씀 있으면 끝에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로 받았는데 기록물화시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실장님이 잘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PPT……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뇌물이라는 말씀은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뇌물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 윤건영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면 현행법 위반은 인정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이 그 표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실장님, 협행법 위반 인정하세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윤건영 위원** PPT 전 것 돌려 보세요.

아니, 여기 10조 1항과 4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 여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악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무조건 숫자는 통보해야 된다고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무튼 거기서 누락이 됐는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는데, 일단 그것이 저는 별적 조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적을 하시지만 단순 실수일지 의도적인 것일지는 여기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영부인이 받은 이 선물은 이것이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에 가야 될 물건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금년 말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역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실장님, 그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협행법은 숫자에 넣어서 통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숫자에 빠진 거예요, 이 선물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것은 단순 실수일 수 있겠는데……

○**윤건영 위원** 실수라니요, 협행법 위반인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단순 실수인데 별적 조항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별적 조항 없으면 대통령실이 법을 어겨도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

○**위원장 박찬대**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실장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김정재 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6월 3일 포항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해 시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 제 고향이자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대통령 말씀 이후로 포항시민들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대통령의 동해 시추 브리핑을 두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브리핑이 가능하느냐, 이것 헌법 89조 위반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이번 브리핑은 탐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도 아니고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고요. 실제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탐사·개발을 하는 것인 만큼 향후에 국가예산이 소요될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이것 발표 전에는 특별히 정부, 국가에 부담이 되는 그런 계약이나 또 재정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없습니다.

○**김정재 위원** 일단 헌법 89조 위반은 아니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김정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가, 지난 1월 9일 통과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서 석유 같은 귀중한 자원은 정책 결정 후에 산업부의 자원안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금년 2월 6일 공포되었는데요. 2025년 2월 7일 시행 예정인 법률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산업부의 자원안보협의회를 거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이게 발표되자마자 십중팔구는 실패할 거라고 그러면서 딴지도 걸고 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든 자원개발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결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산유국의 꿈을 가지고 이번에 시추, 첫 번째 시추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추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자원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오늘 많이 논쟁도 있고 그랬는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연금개혁안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것은 민주당 기준 안이었던 45%를 지키는 것보다 시급하게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통 큰 양보에 국민의힘 일부 인사와 보수 언론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4%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좌절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왜 안 받았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주도권 싸움이나 정치적 유불리 같은 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동의합니다.

○**윤종군 위원** 국가적 과제 앞에서 주도권 싸움이나 정치적 유불리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견이었던 소득대체율 문제를 민주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윤종군 위원** 짧게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짧게 동의하시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금년 내로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저희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연금개혁 로드맵을 언제 정도에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지금 여야 간에 바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개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정부는 모든 뒷받침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여야 간에 협의기구를 만들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윤종군 위원**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하셨지요? 아울러서 정무장관 신설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정무장관의 과제로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즉각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면 대통령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이나 고위급 정치협상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기울여야 될 성의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아니, 그래서 신설되는 정무장관의 첫 번째 과업으로 여야 영수회담이나 고위급 정치협상을 통해서 22대 국회 초기에 연금개혁을 완료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의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미래 과제를 해소하는,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 보여 주면 좋겠고요. 정진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라서 여기 계신 대통령 참모분들께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이 지난 4·10 총선 이후에 첫 운영위 회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총선 후에 처음 국민 앞에 나와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총선 끝나고 옛새 정도 지나서 ‘국민 뜻을 잘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이런 사과 말씀을 하셨지요. ‘겸허히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쭉 들어 보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채 상병 사건은 야당의 선동 정도로 치부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불법수사, 부실수사한 거니까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격노가 뭐가 문제냐, 격노가 죄냐’ 이렇게 받아칠 때는 언제고 1년 넘게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격노는 들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답변이 나오고.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윤 정부 초동 대응 잘못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전 정부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 얘기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등등등 온갖 논란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적절했다는 사과는커녕 말끝마다 ‘김정숙 여사 어쨌다’, 타임머신 같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저는 오늘 보면서 총선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쌓인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국정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희들 잘못이야. 국민이 우리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너네들이 허위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결국 국민들을 어리석은 우민으로 보고 야당을 적으로만 보는 총선 전의 기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가 앞으로 불행해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향적인 답변을 제가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대통령 참모들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들인데 이렇게 ‘우리만 옳다’,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시면 정말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좀 드립니다.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시간 좀 돌려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위원님.

○**배현진 위원** 제가 지난 2022년 문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처음 지적을 했고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공교롭게도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바람에 크게 화제가 됐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정숙 여사가 비싼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면 ‘타지마할에 여행 갔다온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셀프 초청 아니다’, 셀프 초청 맞습니다. 그것은 초청을 받았다라는 초청장을 들고 왜 초청받았는데 초청 안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9월에 장관이 초청을 먼저 받았는데 10월 15일경 우리 외교부에서 초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인도 측에 다시 했고 10월 26일 감사하게도 도종환 전 장관께서 대통령기록물인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서한을 공개해 주시는 바람에 날짜를 확인해서 셀프 초청을 받은 사실을 얼마 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지요.

이 사안의 본질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국민이 준 혈세를 권력자가 어떻게 부당하게 쓰고 있느냐를 제가 그 한 해 살림살이를 잘 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요.

총무비서관님,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문체부 직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한, 타지마할 갔다 왔는데 왜 일정표에도 처음에 제대로 넣지 않고 다녀와서 출장 결과보고서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문체부 예산으로 가기는 했는데 청와대에서 영부인 일정이니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본인들은 장관 말고 따라가지도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저희가 운영위, 상임위 각자에도 배정된 예산은 다른 곳에서 쓸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청와대 식구들이 문체부 예산으로 해외 외교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배현진 위원** 없지요? 그런 사례 전에 보신 적 없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배현진 위원**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이 단독으로 우리 외교부에 배정되는 정상 및 총리 외교의 예산 이외에,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이 그것도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위원님, 외교·순방과 관련된 부분은……

○ **배현진 위원** 그런 적 없지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겠지요?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외교부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돼서 가고 있고요.

○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돼서 가는 거고……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비서실에서 가는 것은 순방 전후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 이외에 저희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 **배현진 위원** 1분만 마지막으로 주시겠습니까?

○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 **배현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총무비서관님께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요.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예산으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불가한……

1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아까 한 번 드렸습니다.

○ **배현진 위원** 안 주셨어요.

○ **위원장 박찬대** 1분 드릴게요.

○ **배현진 위원** 민주당이 현지에서 갑자기 타지마할 요청을 받았다고 올 5월에도 얘기 하셨지만 사실은 2018년에 전용기 탈 때 일정을 받으셨던 고민정 전 부대변인도 계시고 하시니 민주당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참 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700만 재외동포가 염원했던 숙원사업, 재외동포청을 공약대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국제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청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1년 홍사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SOS 받고 그렇게 갈급하게 부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홍사단 본부를 우리 정부가 현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해외 독립유적지를 사들여서 올해 7월에 리모델링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대**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비서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감사합니다.

○ **임광현 위원** 실장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도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인가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입장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아니지요.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자르면 사단장 누가 하냐’ 그렇게 해서 구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런 말을, 그런 주장이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들은 적도 없고 저희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도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입장이 바뀐 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입장이라는 것이 원래 없던 것이지요, 그 내용 자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세수 실적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평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봐서 작년보다 9.1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서민 부담이 큰 부가세만 5.4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이고 지방재정수지도 18.6조 원이나 적자입니다. 그만큼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보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있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세수 상황과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실장님께서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했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30% 선에서 감세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세원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마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언을 좀 드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님이나 정책실장님은 종부세 폐지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강남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정책실장도 강남 등에 다주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셀프 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은 가장 큰 부분이 기업실적 악화입니다. 작년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분기에 29조 정도로 21조 원이 증가했고요. 올해 세수는 기본적으로는 작년 기업실적에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실제 기업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기업실적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임광현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반기에 세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수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늘 했던 얘기입니다. 56조 원 평크 날 때도 그 얘기 했었고요. 그 얘기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광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수요 확보 방안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의 기본 택스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이 거의 3배, 4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리 조금 추가적인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세제 개편은 지금 당장의 세수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세제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 얘기를 하시고 저의 재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종부세를 개편하자는 논의는 이중과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 때문에 1가구 중에서도 고가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 중에서 주택가액을 합했을 때 그 가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였고요.

다만 1가구 1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 주시면서 그렇게 크게 가액이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주택가격이 올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당국과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당장 몇 월 며칠부로 고치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좀 줄여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 않으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말씀을 하셔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율 자체로는 2위에 해당되고요.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해서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폐널티를 받는 부분은 좀 줄여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특히 기업을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업을 파셔서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예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가질문해 주시지요.

○**임광현 위원**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현재에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결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성태윤** 법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가액을

빼 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나 동일 택스 베이스에 대해서 두 번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산세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재추가질의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12시간 동안 참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환노위 야당 위원장이신 위원장님과 우리 간 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22대 국회 총선 끝나고 이렇게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물론 서로 어떤 팩트 체크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수긍, 내심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3선 되고 보니까 재선 때 생각했던 부분과 3선 되고 나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2년 지났고 아직 3년 남아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장님께서 느끼는 그 무게감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뿐만 아니고 야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귀담아들어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귀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서로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무수석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홍철호 정무수석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보다는 야당과 먼저 소통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께서 국가인권위의 여러 가지 측면, 오늘 하루 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짚으셨습니다. 아마 서미화 위원님도 인권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았을 때는 좀 더 인권에 대해서 무엇인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랑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시고 야당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야당 위원님들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통

못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협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대통령비서실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대통령실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인권위원 두 분에게는 차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담함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건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현안질의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상식과 멀어져 있는지를 좀 느꼈습니다. 권력자 한둘의 실수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도 느꼈습니다.

이에 지금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는 2특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4개의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민주당의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민주당 추진안을 받아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비서실장님께서도 오늘 운영위에서 나온 야당 위원님들의 진정성을 대통령님께 전달하셔서 국정기조 전환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김태효 차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김태효 차장님, 오늘 언제까지 중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전후 사정은 제가 잘 듣지 못하고……

○**정진욱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오늘 오는 것은 어제 알았습니다.

○**정진욱 위원** 중인이라는 것은 언제, 중인 취소된 것은 언제 아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정진욱 위원** 오시면서 중인 선서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늘 하게 되면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예.

○**정진욱 위원** 그러면 다음 혹시 중인으로 모시게 되면 꼭 선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부하직원에게 존칭을 씁니까, 아니면 말을 내립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존칭을 쓰실 때도 있고 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정진욱 위원** 화를 잘 안 내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정진욱 위원**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다고……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몇 년 동안에 몇 번 봤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아까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기사도 다 그렇게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 회의에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안보실 회의 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거의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거의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시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그건 아니고요.

○**정진욱 위원** 임기훈 국방비서관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매주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정진욱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때 ‘국방부장관에게 전화 연결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역할은 임기훈 비서관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억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저희 보고회의 시간에는 전화를 하시지 않습니다.

○**정진욱 위원** 맞습니다. 끝난 직후 시간 정도에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섭 장관과 800-7070인가요 그 번호, 그렇게 했는데 이때 임기훈 그분하고 5시쯤에 김계환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박 단장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격노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시간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데 화를 안 냈다고 하니까 다음에 증인 선서하고 한번 말씀하시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호** 예, 아마 제 대답은 같을 겁니다.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추미애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감사합니다.

○ 추미애 위원 그런데 좀 학습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면 좀 시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의무이첩을 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군 수사기관이 전문성이 없어서 의무이첩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군 내부에서 상명하복 체계 안에서 권력작용에 의해서 사건 매장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한다든가 아니면 사령관의 결재가 없으면 기소조차 못 하니까 그런 사건 매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법원법을 고쳤다고 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 추미애 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 추미애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 매장 위험이 있어서입니까, 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 추미애 위원 만약에 전문성이 없다면……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군 내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고.

○ 추미애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이첩이 된 것이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어요, 개정 취지를.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회수를 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자라고 하십니까? 그때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사 처분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이지.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추미애 위원 그래 놓고 또 비서실장께서는……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애당초 상급자·하급자를 망라한 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 추미애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 피의사실과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로 이첩한 자체가 그건 권한 밖의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 추미애 위원 권한 밖의 일이 아니고 이 인지통보서에 의해 가지고 바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군사경찰이 민간경찰 이첩 시에 사용하는 법정 양식에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항명 사건이 아니라, 항명 사건이라고 지금 비서실장이 거듭 반복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사건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 회수

사건이고 누가 무슨 의도로 회수 지시를 했는지, 누구에게 사태의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게 수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자꾸 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가 안 나간다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답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아니, 그래서 제가 수사 당국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 군 내부에 사건 매장 못 하도록 법 개정을 했더니 대통령이 개입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정치적인 공방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법치가 파탄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의혹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법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정진석 비서실장님,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커리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정치를 봐 오셨을 텐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금도 행안부장관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비서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때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제 생각은 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백오십아홉 분의 서울시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경질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과거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던 선례에 비추어서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탄핵심판을 당했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것이 탄핵에 인용이 되지 않은 법률적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글쎄요. 그런 사고가, 그런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누구를 특정해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에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모두에 반성할 점……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모두에 반성할 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우리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보면서도 느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어쩌면 예전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더 책임을 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사단에서도 작은 사고만 나도 사단장이 옷을 벗거나 진급에서 누락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하물며 정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면 저는 더 엄격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본인은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표 수리도 안 하고 사직도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실장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은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쉬이 그 부분을 잘 믿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웬지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러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대통령께서 조작 가능성 언급은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회고록 내용 중에 이상민 장관이 억울할 수도 있어서 사퇴를 못 시키겠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이 억울할 수 있어서 사퇴를 못 시키겠다라는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제가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는 작가인 김진표 전 의장 스스로 유감 표시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자원안보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접 브리핑의 무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지난 1월 9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7월 1일이니까 6개월 정도 전입니다.

법이 만들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부터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비서실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도 관련 논의가 시작도 안 됐다니요. 지금 6개월 전입니다. 직무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답이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의아할 정도고요.

현법 관련해서도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니고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기보다 에너지 개발계획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에너지 개발계획에 재정 논의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사후적으로 민간투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미 석유공사, 공기업이 160만 달러, 22억이 이미 소요된 일입니다. 이미 소요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법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것 그냥 단순 브리핑입니다. 계획입니다’라고 지금 여당 위원과 묻고 대답하고 웃고 그리고 맞다고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브리핑의 무게를 알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비극인지 코미디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속된 말로 당장 위법한 것을 피해 나갔다고

그걸 지금 여기서 득의양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최근에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견 알라바이 받으셨지요? 맞습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대통령 내외가—14일 기사입니다—알라바이를 관저에서 직접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이 외교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 좀
낯 뜨거운 기사입니다.

그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다가 수개월 후 동물원에서 키우면서 대중에
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
다. 이것 이미지 메이킹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저 알라바이는 특수한 개입니다, 위원님. 성견이 되면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라바이 평균 체중은 40~70kg이라고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시행령에……
지금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법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유정 위원**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해서 이 부분이 시행령에만 있고 아직 법으로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공격도 하셨으면서 왜 이걸 안 만들어 놓으셨습
니까, 만들어 놨으면 문제없을 걸.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강유정 위원** 법제처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풍
산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결국 스스로 걸리셨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잘 안 들려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몇 가지만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대통령기록물이 확실하면 대통령기록관에 바로 통보하지만 그
부분의 판정이 애매한 경우는 판정할 때까지 통보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지막쯤 돼서 대거 특활비와 관련돼
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바람에 마지막 해에 대통령기록물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회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회의 관련돼서 녹음을 하는 회의, 속기록 하는 회의 아니면 회의록만 하는 회의, 관련된 규정들이 법·시행령·예규에 산재해 있어서 어떤 회의는 굳이 속기록 안 남겨도 되는 회의도 많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예.

○**주진우 위원** 그리고 최재영 목사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예시입니다만 의원회관에 검침원이나 다른 일반 청소원을 가장해서 몰래 들어가서 의정활동하는 것 사진으로 몰래 찍어 온다. 그러면 청소원인 줄 알고 안내를 받았겠지만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이 성립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몰카를 찍으러 들어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지금 주거침입을 자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질의 내용 보다 보니까 김영란법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배우자는 그러면 뭐든 다 받아도 되는 거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우자분들 중에서도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어치만 식사를 할 수 있고 5만 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배우자들이 직업 가진 분이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아무 상관없는 친구를 만나거나 뭐 했을 때 5만 원, 3만 원 그런 제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심하겠지요. 그래서 김영란법을 최초에 만들 때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한 규정을 뒀고, 본인은 그런 것까지 따지면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떨어질까 봐 본인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인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고 목사이고 아버지 친구로 접근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창준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게 일단 그 가방이 오고간 시점보다 한참 뒤의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조언이지요. 김창준 하원의원이랑 무슨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국정자문위원이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닌데 그런 걸 하면 국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정무적 조언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어떤 청탁도 받아 준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이충상** 저 1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주 위원님.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인데요.

박성준 간사님.

○**박성준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권력에 사이클이 있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의 집권기의 통치 스타일, 안정기의 통치 스타일 또 정점기, 하락기, 침체기, 이 스타일에 맞게 통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의 집권 2년 후에 지금의 민심의 바로미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민심 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왔잖아요. 민무신불립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집권이 되고 그 속에서 안정기를 이루는 건데, 저는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집권 2년 차, 3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국회운영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대통령비서실장님이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권력의 폭주기를 넘어서 폭락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통치 스타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권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고, 앞으로 민심 회복의 큰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12시간이 넘게 운영위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충선 직후에 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내각과 당, 언론, 시민사회, 모든 부문에서 원만하게 소통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해주셨는데요. 또 비서실장님께서도 자신이 내셨던 책에서 야당 협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비서실장님께서 두 달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야당을 국정운영에 협치를 이끌어 낼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대통령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마칠까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대 첫 국회운영위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참고자료를 얻어 가는 느낌입니다.

민심은 냉엄했습니다. 정부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야당과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더 긴밀한 밀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더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도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오늘 여야 위원님들, 대통령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상대로 좋은 지적 잘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당부 말씀이 계셨지만 늘 국회가 가지는 장점이 국민과의 접점이 가장 가까운 데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큰 장점입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늘 위원님들 목소리 여야를 떠나서 잘 경청하시고 국정에 잘 투영시켜서 걱정하시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국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실장님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 운영 위원님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자주 만나시고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고 대통령께도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좋고 아니면 야당의 중진 의원님들…… 꼭 영수회담이 정부와 대통령과 야당, 정치권의 접점이 되는 그런 이벤트로 볼 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들도 관저에도 모시고 용산에도 모시고 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 아마 대통령실, 정부, 국회 또 여야가 훨씬 원활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야당 위원님들과의 소통 자리는 오늘 밤도 당장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일정을 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오늘 운영위 현안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실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및 속기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명구 강민국 강유정 고민정 곽상언 권영진 김정재 노종면 박성준 박수현
박찬대 배준영 배현진 부승찬 서미화 신장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임광현
임이자 정성국 정을호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경호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입법심의관 주성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실장 정진석

정책실장 성태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전광삼

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총무비서관 윤재순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국가안보실

실장 장호진

제1차장 김태호

제2차장 인성환

제3차장 왕윤종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김용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소희 김종양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이종욱 조지연	강명구 강민국 권영진 김정재 배현진 임이자 주진우	국민의힘	2024. 6. 26.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2)

이상 2건 6월 2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8)

이상 2건 6월 25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3)

이상 2건 6월 2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6월 2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재정건전화법안

(2024. 6. 17.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

이상 2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4. 6. 26. 의장 제의)

6월 26일 회부됨